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 士 學 位 論 文

朝 鮮 時 代 墳 庵 研 究

-坡州지역 墳庵을 중심으로-



2010年

HANSUNG
UNIVERSITY

漢 城 大 學 校 大 學 院

史 學 科

韓 國 史 專 攻

權 孝 淑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姜秉植

朝鮮時代 墳庵研究

-坡州지역 墳庵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mall Buddhist Temples Guarding
Tombs in the Joseon Dynasty

2009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史 學 科

韓 國 史 專 攻

權 孝 淑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姜秉植

朝鮮時代 墳庵研究

-坡州지역 墳庵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mall Buddhist Temples Guarding
Tombs in the Joseon Dynasty

위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9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史 學 科

韓 國 史 專 攻

權 孝 淑

權孝淑의 文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9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기존 연구의 검토	2
제 3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 2 장 조선시대 분암의 설립과 운용	5
제 1 절 분암의 설립과 형세	5
제 2 절 분암의 기능과 역할	8
제 3 절 분암의 형태와 운영	13
제 4 절 분암의 위상 변화	20
제 3 장 파주지역 분암의 유형과 특성	23
제 1 절 파주의 지역적 특성	23
제 2 절 사액분암 성재암의 운영과 기능	25
제 3 절 문중분암 오봉사의 운영과 기능	30
제 4 장 결 론	32
【참고문헌】	35
【부 록】	37
ABSTRACT	42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분암(墳庵)’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용어이다. 학계에서조차도 분암이라는 용어를 낯설어한다. 그러나 분암은 조선시대의 각종 기록을 통해 수없이 볼 수 있으며, 현재까지도 사찰의 형태로 남아있다. ‘분암’을 어의적으로 정의하면 墳은 무덤이고, 庵은 암자이니 ‘무덤가에 있는 암자’를 말한다. 용례에 따라 설명하면, ‘선영의 묘역 주위에 건립되어 묘소를 수호하고 선조의 명복을 빌며 정기적으로 제를 올리는 것과 관련된 불교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사회는 불교를 배척하고 성리학적 이데올로기를 내세웠지만 조선왕조의 각종 기록을 보면, 국가이념과는 달리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여러 불교적 의례와 관행이 널리 행해졌다. 가령 조정에서는 불교를 배척하고 사찰을 없애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하는 상소를 올리는 대신들도 실제 자신의 가정과 문중에서는 묘역 주위에 사찰을 건립한다거나 불교적 의례에 참여하고 사찰에 재산을 헌납하는 등 각종 불교적 행위를 공공연히 행하였다. 이는 일견 모순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숭유억불(崇儒抑佛)을 내세우는 조선사회에서도, 유학자들은 불교 승려와 신도들이 일으킨 폐단을 비판한 것이지 불교의 사상과 교리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¹⁾

조선 초 사대부들에게 불교행위는 일상적이었다. 태종이 “동방의 거유(鉅儒)인 이색(李穡)도 호불(好佛)하고 하륜(河崙) 외에 사대부들이 모두 몰래 불사를 벌이고 있다”²⁾고 지적하고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대부 자신들은 불교적 상제(喪制)를 따르면서도 왕실의 불사(佛

1) 『조선왕조실록』, 세종 55권, 14년(1432) 3월 5일(갑자) 2번째 기사. ‘집현전 부제학 설순 등의 불법(佛法)을 억제할 것을 주청한 상소.’

『조선왕조실록』, 태종 10권, 5년(1405) 11월 21일(계축) 2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불교의 퇴폐상을 열거하고, 금산사 등의 토지와 노비를 환수할 것을 청하다’ 등.

2) 『조선왕조실록』, 태종 5권, 3년(1403) 3월 甲辰條. “又謂右代言李膺曰: “李穡, 東方鉅儒也. 然好覽《大藏經》, 爲諸儒所笑. 今之不作佛事者, 其惟河崙乎! 其他儒者, 不無陰作佛者也”

事)에는 반대하는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종이 어머니인 원경왕후(元敬王后)의 능에 절을 설치하려는데 유신(儒臣)들이 반대하자 세종은 “사대부들이 모두 부모를 위하여 재사(齋舍)를 설치하면서 대비릉에만 절(寺)을 설치하지 못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라고 하였다.³⁾ 이렇듯 조선초 왕실과 사대부 계층에서는 불교식 상장례(喪葬禮)를 행하거나 절이나 분암을 건립하여 승려로 하여금 불교식 제례(祭禮)를 거행하게 하는 일이 일반적이었다.⁴⁾ 바로 이런 배경에서 유학자들은 묘역 부근에 불교 시설인 분암을 건립하였다. 전국적으로 분암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분암은 기포성산(碁布星散)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성리학적 통치이념 하에 송유억불책을 실시하는 조선사회에서 불교적인 건축물인 분암이 일반적인 현상일 정도로 널리 건립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였을까? 그리고 주로 사대부 관료계층의 문중에서 건립하였던 이 분암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며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러한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분암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기존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조선시대 분암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분암의 실체에 대해 구명해 보고자 한다.

제 2 절 기존연구의 검토

재실(齋室) 또는 재사(齋舍)에 관한 연구로는 주로 건축학적인 입장에서 여러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지만,⁵⁾ 분암에 대한 연구는 이해준의 「光山金

3) 『조선왕조실록』. 세종 8권. 2년 7월 癸未條. “今士大夫爲其父母, 皆置齊舍, 至于大妃陵, 若不置寺, 深以爲憾”

4) 崔在錫, 「朝鮮初期의 喪祭」, 『규장각』 7, 서울대학교 규장각, 1983, pp.56~57.

5) 권순강, 「밀양 여주이씨 조영활동에 관한 연구:정자.재실.사당 중심으로」, 목포대 석사논문, 2003. 김동인, 「조선시대 재실건축의 배치와 평면유형에 관한 연구:경상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영남대 박사논문, 1993.

金奉烈, 「安東地域 齋舍建築 調査研究」, 『文化財』 29, 文化財管理局, 1996.

金文澤, 「安東 眞城李氏家 齋舍의 건립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 통권 27호, 2003.

박강철, 이상선, 신웅주, 「광주.전남지역 재실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 지역사회발전연구』, 2003.

유기원, 「안동문화권 재실건축 : 건축적 형식과 역사적 전개」, 연세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

氏 墳庵 ‘永思庵’ 資料의 性格」⁶⁾이 유일하다. 이 글에서 이해준은 분암에 관한 용례 기록을 조선시대 각종 문집들을 통해 검토하고, 광산김씨 가문의 분암인 영사암(永思庵) 관련 고문서 자료인 『선조창립고암지철권후록(先祖創立高菴誌鐵券後錄)』의 내용을 통해 영사암의 운영과 중수 내역 등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분암은 조선의 유교적 묘제사와 재실 제도가 정착되기 이전 과도기적 모습이며 유교와 불교문화의 교섭형태라고 하였다.

그러나 분암이 성리학적 지배이념의 사회 속에서도 왜 널리 설립되었는지, 분암을 설립하였던 목적과 분암의 기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 또한 분암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 위상과 성격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가 등에 대해서도 구명(究明)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제 3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상과 같이 분암의 개념과 시대적 배경, 그리고 분암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각 장별로 조선시대 분암에 관한 실체를 구명해보기로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조선시대 분암이 언제부터 설립되었는지, 조선 개국 후 일반적으로 어느 계층에서 어떤 형세로 건립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분암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해왔으며,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해 갔는지,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른 분암의 위상과 형태는 어떻게 변화해 갔는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다음 3장에서는 파주지역 분암의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려 한다. 여기에

사논문, 2007.

이상선, 「전남지방 재실의 실태에 관한 연구」, 조선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3.

이정, 「경북.대구지역 재실공간의 조영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008.

이정, 「전라남도 재실공간의 입지와 경관 특성」, 『남도문화연구』 7집, 2001.

이정자, 「경남 밀양지역 齋室建築의 특성에 관한 연구」, 밀양대학교 석사논문, 2003.

전병일, 「제례공간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충청도 지방의 재실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석사논문, 2002.

정재영, 「신양반 의식의 형성과 재실의 건립:청도군 수야리의 사례」, 영남대 석사논문, 2006.

등 다수가 있다.

6) 이해준, 「光山金氏 墳庵 ‘永思庵’ 資料의 性格」 『고문서연구』, 한국고문서학회, 2004.

서는 먼저 경기도 파주의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근기지역인 파주지역의 국왕으로부터 하사받은 사액분암(賜額墳庵)과 사대부가문의 문중분암이 존재하였음을 알아보겠다. 그리고 사액분암의 사례로서, 조선 전기에 건립되어 ‘문중절’로서 아직까지 존립해오고 있는 파주 교하지역의 분암인 파평윤씨가(坡平尹氏家)의 성재암(聖在庵)에 대하여 검토해보려 한다. 또 문중분암의 사례로서, 조선 중기에 건립된 파주 월릉지역 함안조씨가(咸安趙氏家) 오봉암(五峰庵)의 건립내역과 기능 및 운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선왕조실록』 등의 사료와 조선시대 사대부의 여러 문집을 활용하였다. 아울러 문중에서 보관해 오고 있는 고문서와 책자를 통해 분암의 운영 및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였다. 또 분암 관련 선행 연구와 조선초기의 상제(喪祭)연구와 안동지역 재사 연구 등을 통해 불확실했던 분암의 개념 및 초기 형태 등을 이해하였다.

HANSUNG
UNIVERSITY

제 2 장 조선시대 분암의 설립과 운용

제 1 절 분암의 설립과 형세

조선시대의 분암(墳庵)이라는 용어는 조선시대 각종 문집과 편지글, 시, 비문, 일기, 중건기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다.⁷⁾ 이로 볼 때 조선시대에 ‘분암’은 사대부가에서 무척 친근하고 일상적인 장소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시대 널리 건립되었던 분암은 고려 때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1654년(효종 5년)에 정랑(正郎) 안홍중(安弘重)이 쓴 『추원사기(追遠寺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묘소를 수호하는 것은 초화(樵火)를 막는 것이니 마땅히 절을 지어 승려를 모으는 것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풍속으로 장절공(將節公) 신송겸(申崇謙)이 그 제도를 처음 만든 이래 유명한 이의 묘역에 절이 없는 곳이 없다.⁸⁾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 볼 때 묘소에 절을 지어 승려로 하여금 수호하게 하는 것은 고려 초기 신송겸 때부터 그 제도가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역시 분암이 널리 건립되었다. 반남박씨(潘南朴氏)⁹⁾ 문중기록에는, “조선 세종 때 박은(朴堧 1370~1422)이 시조 박응주

7) 인터넷 검색사이트 <http://db.itkc.or.kr> <한국고전번역DB/한국문집총간><http://db.history.go.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에서도 72개의 분암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

분암은 재궁(齋宮), 재암(齋庵), 능암(陵庵), 재사(齋舍) 등으로 불리우며 『조선왕조실록』에서 이와 관련하여 수많은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다. 안동문화권에서는 재사(齋舍)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지만 정사(精舍), 재려(齋廬), 재암(齋庵), 분암(墳庵), 추암(楸庵), 추사(楸舍), 묘사(墓舍)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유기원, 「안동문화권 재실건축 : 건축적 형식과 역사적 전개」, 연세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논문, 2007. p23, pp28~29. 안동민속박물관, 『安東의 齋舍』, 2009, p.139, p.224)

8) 안홍중(安弘重), 「추원사기(追遠寺記)」 『韓國文集總刊』, 민족문화추진회, 1999, “守護宅兆禁止樵火宜莫如置刹而募僧故國俗將節公申崇謙創開其制名公塋域無處無刹.”

9) 반남박씨는 고려 후기에 발호한 거족으로 시조 호장공 박응주는 고려 때 반남의 호장을 지냈으며 4세 박수(朴秀)는 고려 충렬왕 때 密直副使 上護軍을 지냈고 그의 아우 박려(朴麗)가 錦城縣長을 지냈으며 5세 박상충(朴尙衷)이 右文館 直提學을 지낸 것으로 보아 고려말부터 관직으로 진출하여 조선시대까지 명문거족의 기틀을 닦아나간 집안이다.

(朴應珠)의 묘역 수호를 위해 전라남도 나주시 반남면에 석천암(石泉庵)을 건립하였다”는 기록이 있다.¹⁰⁾ 박은의 생존연도로 볼 때, 14세기 후반이나 15세기 초반에, 분암이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춘영(李春英 1563~1606)의 문집 『체소집(體素集)』의 「김씨분암기(金氏墳庵記)」(1596년)의 내용을 보면 “世居府東北朱怡村 其祖生員麟瑞以下墓 皆在蘆洞 有庵於其側 使僧徒守之 壬辰之亂 爲兵火所燒 今爲之改創云”라 하여 김배침(金培琛)의 시조(始祖)인 전서공(典書公)과 조부 김인서(金麟瑞)의 분암(墳庵)이 정주(定州) 노동(蘆洞)의 묘소 옆에 있어 승려로 하여금 수호하게 하였는데, 임진왜란으로 불타서 개창하면서 이 기문을 지었다는 내용이 있다.¹¹⁾

위에서 살펴보았던 1654년(효종 5년)에 정랑(正郎) 안홍중(安弘重)이 쓴 『추원사기(追遠寺記)』에는 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추원사(追遠寺)는 방촌(龍村)의 5세손 송재(松齋) 황즙(黃葺)이 임진란(壬辰亂)에 충청도 비인(庇仁)으로 피란갔다가 귀경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졸하니 그 아들 황정직(黃廷直)이 남포현(藍浦縣) 접동곡(接東谷)에 장사하고 시묘(侍墓)가 끝난 후 묘하(墓下)에 절을 짓고 덕해(德海)라는 승려로 하여금 묘역을 수호하게 하였는 바 그 절 이름이 추원사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황희의 5세손 황즙(黃葺)이 임진란(壬辰亂:1592년)에서 사망할 당시에도 묘 아래에 절을 짓고 승려로 하여금 묘역을 수호하게 하는 일은 사대부 가문에서 일반적인 풍속이었으리라 짐작된다. 이렇듯 임진왜란 시기에도 분암이 존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양천(陽川) 허균(許筠 1569~1618)의 시문집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에는 “신축년(1601, 선조34) 12월 24일(庚辰)에 노수(蘆薮)의 분암(墳庵)에 이르러 성묘하였다”는 내용과 30일(丙戌)에 “분암에 돌아와 연말을 보냈다.”는 내용이 기록되

10) 인터넷 홈페이지(www.bannampark.org)/[반남박씨의 발자취] “반남박씨는 호장공(戶長公) 『박응주(朴應珠)』를 1세(世)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호장공의 묘역은 반남박씨의 성지이다. 호장공의 묘역은 조선 세종 때 박은(평도공)께서 묘역 보호를 위하여 현 상로재 북편 언덕에 석천암(石泉庵)을 건립하였는데 <하략>.”

11) 『體素集』 卷下 「金氏墳庵記」. 이해준, 「光山金氏 墳庵 ‘永思庵’ 資料의 性格」, 『고문서연구』, 한국고문서학회, 2004, p147에서 재인용.

어 있는 것으로 보아 17세기 초 연말에 허균이 분암을 자주 왕래하였음을 보게 된다.

18세기에도 분암의 사례가 확인된다. 위의 반남박씨 시조 박응주 묘역에 세종 때 지은 석천암은 1739년(영조 15)에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다시 중건하였으며 박응주의 관인이 석천암에 보관되어 있다가 1740년(영조 16)에 승려의 실화로 소실되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18세기 중반까지 분암에 승려가 거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²⁾ 또 명재(明齋) 윤拯(尹拯, 1629~1714)의 명재유고(明齋遺稿) 제1권에는 “신묘년 10월에 부친을 모시고 장구동(長久洞)에 소분(塋墳)하고 한천(寒泉)으로 들어가서 여러 숙부·형제들과 모여 함께 분암(墳庵)에서 자고, 이튿날 아침에 종회례(宗會禮)를 행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분암에서 종친들이 숙박을 하고 종례회를 행하는 등 18세기에도 분암은 일상 속에서 매우 친근한 곳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검토를 통해 분암은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설립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분암은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또 다수로 설립되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조선왕조실록 1423년(세종 5) 10월 13일자 기사에 참고가 된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사사(寺社)를 새로 조성함을 금지하는 법이 육전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무식한 무리들이 사사(社寺)와 분묘(墳墓)의 재실(齋庵)을 속속 신조하고 있으니, 매우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신축만이 아니라, 비록 옛 기지에 중건한다 하더라도 전지를 받들어 짓는 자가 아니면 모두 죄를 주고 철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하니, 그대로 따랐다.

위의 기록에 의하면, 사대부 계층으로 판단되는 ‘무식한 무리’들이 “사사(社寺)와 분묘(墳墓)의 재암(齋庵)을 속속 새로 신축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세종 31년(1449) 6월에 전라도 능성현(綾城縣)의 교생(校生) 양회(梁

12) 인터넷 홈페이지(www.bannampark.org)/[반남박씨의 발자취] “ 호장공의 묘역은 조선 세종 때 박은(평도공)께서 묘역 보호를 위하여 현 상로재 북편 언덕에 석천암(石泉庵)을 건립하였는데 1739년(영조15) 10월 화재로 소실되었고 중건할 때 현재의 석천리로 옮겨 중건하였다.그때의 관인이 석천암에 보관되어 있었으나 조선 영조 16년(1740년) 승려의 실화(失火)로 소실(燒失) 되었다. ”

淮) 등이 현령(縣令) 최추(崔湫)에게 고하고 허락을 받아 재암(齋庵) 11곳을 불태우기까지 하였다¹³⁾는 기록이 있다. 이로 보건대 15세기에 분암은 전국적으로 널리 건립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다.

심지어 세종이 재암의 설립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였으나¹⁴⁾ 실제로 시행하지 못할 정도로 재암은 많이 설립되고 있었다. 즉, 『조선왕조실록』, 세종 31년(1449) 8월 15일자 기사에 의하면 “사사(寺社)를 새로 짓는 것을 금함이 비록 『원전(元典)』에 기록되어 행한 지 60 여 년이 되었어도, 절을 헐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불당을 세우게 되니까, 감사와 수령들이 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여 일부러 불사르게까지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¹⁵⁾ 라고 하여 사사(寺社)의 신축을 60년 전에 금하였지만 실제로는 15세기 후반기에도 재암의 명목으로 사찰의 신축이 공공연히 이루어졌고, 왕실에서도 여전히 불당을 짓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불교적 장례풍속과 관련이 깊은 분암은 유교사회인 조선시대에도 널리 건립되고 있었다. 조정에서는 불교사찰의 건립을 규제하고, 유생들이 재암의 건립을 비판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대다수의 양반 사대부가들에서는 묘역에 분암을 건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 2 절 분암의 기능과 역할

앞 절에서는 조선시대 분암의 설립과 사대부층의 이에 대한 선호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분암의 기능과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알아보기로 하겠다.

고려시대는 불교를 국교로 하였기에 장례(葬禮)는 매장이 아닌 화장이 일반적이었다. 화장식 장례에서는 사찰 근처의 산록(山麓)에서 화장을 하고 유골을 수습하여 분암(墳庵)에 안치하고, 매장 전까지 추천설재(追薦設齋)¹⁶⁾를 지내고, 초하루, 삭망, 기일 등에 불교식 제사를 지냈다. 이러한

13) 『조선왕조실록』, 세종 125권, 31년(1449) 8월 15일(임술) 2번째 기사.

14) 『조선왕조실록』, 세종 96권, 24년(1442) 5월 10일(기사) 2번째 기사. 세종은 즉위 24년(1442) 2월 재암과 사사를 훼손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15) 『조선왕조실록』, 세종 125권, 31년(1449) 8월 15일(임술) 2번째 기사.

과정을 마친 후 3개월 내지 3년이 지나 유골을 매장하였다.¹⁷⁾ 분암은 바로 화장하고 난 유골을 모셔두고 승려로 하여금 명복을 비는 재(齋)를 지내기 위한, 즉 치상(治喪)과 관련하여 활용되었다.

화장례식에서 유골을 안치하는데 활용되었던 분암의 기능은 조선초기에도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이때까지도 불교식 상장의례가 널리 행해졌던 데에서 그렇게 추론할 수 있다. 태조 때에 사헌부(司憲府)가 화장(火葬)을 금지시키라고 건의하였지만¹⁸⁾, 태종 때에 전 감무(監務) 김옹(金雍)은 아버지를 화장하였다.¹⁹⁾ 조선이 개국한지 40년이 경과한 세종 14년(1432)에는 “불교식으로 상을 치르는 자가 사대부 10명 중 6~7명에 달하고, 유교식으로 상을 치르는 자는 겨우 3~4명에 불과”할 정도였다.²⁰⁾ 또한 성종(成宗) 1년(1470)에도 성종이 “사헌부와 감사·수령으로 하여금 화장을 보다 엄하게 금단케 하고, 친족이나 인리(隣里)로 알면서도 금지시키지 않는 사람까지 중죄를 주라”²¹⁾고 할 정도로 화장이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 조선시대에 <주자가례>에 의한 유교식 상제(喪祭)가 강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동안 뿌리를 내려온 불교식 상장의례가 유교식 상장의례로 쉽게 바뀌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현상으로 미루어 보면 조선 초기까지는 불교식 장례의 유행으로 분암의 유골 안치 기능이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화장 시 유골을 안치하던 분암의 기능은 점차 약화되었다. 왜

16) 추천설재(追薦設齋) 初齋부터 七七齋까지의 七七齋와 百日齋·小祥齋·大祥齋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17) 崔在錫, 「朝鮮初期의 喪祭」, 『규장각』 7, 서울대학교 규장각, 1983, pp.48~49. 사망부터 화장까지의 기간은 보통 수일 내지 십 여일에 불과하나 화장부터 매골(埋骨)까지의 기간은 몇 달부터 길게는 2~3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즉 분암에 유골을 안치하고 제를 지내는 기간이 길었다는 것이다. 고려 후기로 내려오면 사망에서 매장까지의 기간이 3일에서 길어야 5개월 정도로 짧아진다.

18) 『조선왕조실록』, 태조 7권, 4년(1395) 6월 28일(경인) 3번째 기사.

19) 『조선왕조실록』 태종 26권, 13년(1413) 12월 28일(계유) 2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상소하여 전 감무(監務) 김옹(金雍)의 죄를 청하였다.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김옹이 아버지의 시체를 사나운 불길 속에 두었고, 또 3년이 지나도록 날짜를 미루고 장사를 지내지 않으니, 심히 인자(人子) 마음이 아닙니다. 청컨대, 유사(攸司)에 내려서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20) 『조선왕조실록』, 세종 55권, 14년(1432) 3월 5일(갑자) 2번째 기사.

21) 『조선왕조실록』, 성종 3권, 원년(1470) 2월 7일(병진) 4번째 기사. “人子之於親, 歿則當卜宅兆, 以安體魄, 無知之民, 或有不葬其親而燒焚之, 毀風俗, 蔑彝倫, 莫甚於此. 祖宗以來, 已有禁令, 然恐習俗猶踵前弊. 自今, 內而憲府, 外而監司, 守令, 痛行禁斷, 如有犯者, 依律論罪, 其族親, 隣里知而不禁者, 並重論.”

나하면, 화장의 규제와 주자가례의 시행으로 성종 대에 이르러 불교식 상장의례를 쓰는 자가 드물어지면서²²⁾ 화장이 감소하고 대신 유교식 장법(葬法)인 토장(土葬)이 점차 일반화되었기 때문이다.

대신에 망자의 명복을 빌고, 기일에 재(齋)를 지내는 치재(致齋) 장소로서의 분암의 기능은 강화되었다. 이는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이 화장(火葬)을 금제(禁制)한 것과 달리 망자의 명복을 비는 추천재(追薦齋)²³⁾는 규제가 심하지 않았고²⁴⁾, 왕실에서도 추천(追薦)은 물론 사찰과 암자에서 기신재(忌辰齋)를 자주 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²⁵⁾ 왕실에서 분묘나 왕릉 옆에 사찰을 세워 망자를 위한 추천재(追薦齋)·기신재(忌辰齋)²⁶⁾·법석(法席)²⁷⁾ 등 불교식으로 재를 올리는 것²⁸⁾에 영향을 받아, 사대부 집안에서는 묘역 주위에 ‘재암(齋庵)’ 또는 ‘분암(墳庵)’이라는 이름으로 불교적 건축물을 설립하여 불교식 제례를 행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 분암의 기능은 왕실의 재궁 기능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²⁹⁾

이와 관련하여 지산(芝山) 윤구영(尹龜永, 1823~1888)이 편찬한 『찬수록(纂修錄)』의 「성재산기(省在山記)」의 내용이 참고가 된다.

22) 『조선왕조실록』 성종 261권, 성종 23년 1월 庚子條. “...公卿大夫 庶幾知所向方 行喪之家 鮮用浮屠 談道之士 恥言釋...”

23) 사람이 죽은 뒤에 선(善)을 찾아가라고 기원하는 재(齋)

24) 『조선왕조실록』 태종 2권, 1년(1401) 12월 5일(기미) 1번째 기사.

『조선왕조실록』 세종 9권, 2년(1420) 8월 22일(무오) 2번째 기사.

25) 조선 전기에는 왕실에서 기신재(忌辰齋)를 사찰에서 지냈는데 신덕왕후는 흥천사에서 태조는 흥덕사, 태종의 기신재는 진관사에서 지냈다. 태종 18년(1418년) 태종의 4남 성녕대군(誠寧大君)이 14살의 어린 나이에 홍역으로 죽자, 태종은 이를 애통하게 여겨 그의 사저(私邸)를 원찰(願刹)로 삼아 명복을 빌도록 하고 경기도 고양현(高陽縣) 북쪽 산리동(酸梨洞) 분묘 곁에 대자암(大慈庵)을 세우고 노비 20구(口)와 전지 50결(結) 등 사패지(賜牌地)와 노비를 내려 불공을 올리게 하였다. 그리고 세종의 사후 문종 또한 부왕의 초제(初祭)를 이 대자암에서 지냈다. 이후 대자암은 선종(禪宗)에 속하는 원찰로 왕족의 기신재(忌辰齋)를 설행하는 처소로 자주 이용되었다.

26) 망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사찰에서 올리는 齋.

27) 설법, 독경, 강경(講經), 법화 따위를 행하는 자리.

28) 기신재는 중종 14년(1519)에 혁파되었다가 명종 6년(1551)에 다시 재개된다. 명종은 선교양종을 철폐하고 승과시험과 도첩제를 폐지하는 등 강력한 억불책을 폈던 임금이다. 『조선왕조실록』 중종 36권, 14년(1519) 6월 21일(계미) 1번째 기사. “...今又革罷(忌辰)〔忌辰〕等祭, 而乃絶矣...”

『조선왕조실록』 명종 11권, 6년(1551) 3월 24일(임자) 1번째 기사. “...봉선전(奉先殿)에 소장한 은그릇 등의 기물(器物)은 기신재(忌辰齋) 때 쓰던 것이다. 전일 기신재를 중간에 폐지했던 까닭에 봉선전에 두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봉선사(奉先寺)에서 기신재를 올리니 은그릇 등의 기물들을 봉선사로 옮겨주는 것이 옳다.”

29) 파주와 안동지역에서도 분암 또는 재사를 흔히 재궁 또는 재궁절이라 부른다.

圓幾十許里中有一清寺 每於朔望 諸宗展禮省掃 禁養松楸 樵牧不得入 可卜永世勿替之休矣.³⁰⁾

위의 글에 의하면, 파평윤씨의 성재산에 있는 한 절, 즉 성재암에서 매월 삭망에 종친들이 모여 예(禮)를 행했다고 한다. 그 예식은 조상에 대한 명복을 빌었던 치재가 분명하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분암은 고려시대 때 왕실과 고위계층 관직자들이 설립하였던 ‘원당(願堂)’과는 설립주체, 설립장소, 기능과 역할의 면에서 상이하였다. 고려시대의 원당이 사찰에 설치되어 왕실과 개인의 행운과 축복, 국가의 존위를 기원하는 것³¹⁾이었던 데 반하여, 조선시대의 분암은 사대부 및 관료의 가문에서 특정 인물의 묘역 근처 또는 선영 아래에 설립하고, 승려를 거주시켜 불교적 재(齋)를 지내고 망자의 명복을 빌어주는 역할을 하였던 곳이다.

또한 분암은, 주변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경관이 좋을 경우, 유생들이 모여 시문을 짓거나 강론하는 학문 연마의 장소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김진(金璉)의 사빈영당(泗濱影堂)은 묘하에 있는 분암이지만 당우가 차츰 넓어지고 지역이 맑고 수려하여 유생들이 모여 학문하고 강론을 하던 곳으로 이용되었다.³²⁾ 백화재(白華齋) 황익재(黃翼再; 1682~1747)는 옥봉(玉峯)의 분암(墳菴)에서 한덕사(韓德師) 등 사우(士友)들과 시회(詩會)를 갖고 유람하였다.³³⁾

분암은 문집을 정리하고 간행하는 장소로도 이용되었다. 윤동수의 『경

30) 지산(芝山) 윤구영(尹龜永, 1823~1888)이 편찬한 『찬수록(纂修錄)』의 「성재산기」

31) 韓基汶, 「高麗時代 寺院의 運營基盤과 願堂의 存在樣相」,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1994. pp.108~188. ‘원당’의 정의에 대해 한기문은 특정의 인물이 어떤 사원에 대해 창건(創建)·중수(重修)·시납(施納) 등을 통해 거의 독점적인 발원이나 운영에 참여하는 사원을 의미하며, 불교사회라 할 수 있는 고려에서는 왕실을 비롯하여 관인 및 고승의 원당이 활발히 설립되었으나 조선에서는 거의 왕실로 한정되었다고 하였다. 왕실의 원당, 관인의 원당, 국사·왕사의 원당으로 구분하며, 어진(御眞), 태장(胎藏), 축성보(祝聖寶)의 설치여부와 조상숭배의 기능 및 왕실 제정 기반으로서의 기능으로 구분된다. 또한 원당은 개인과 왕실 또는 국가의 존위를 기원하는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한 사찰 내에 다수가 존재하기도 하였다.

32) 권덕수(權德秀 1672~1759), 『포헌선생문집(逋軒先生文集, 1778년(정조 2)에 간행』 ‘사빈영당을 훼손하지 말 것을 청하는 상소[請勿毀泗濱影堂疏]’.

33) 백화재(白華齋) 황익재(黃翼再 ; 1682~1747)의 문집 『화재집(華齋集)』에는 「여이밀암(與李密菴, 1718)」이라는 편지가 있다. 이 편지에서 황익재(黃翼再)는 옥봉(玉峯)의 분암(墳菴)을 수리하고 이를 기념하여 한덕사(韓德師) 등 사우(士友)들과 시회(詩會)를 갖고 유람한 일들을 전하고 있다.

암유고(敬菴遺稿)』 ‘연보(年譜)’에 의하면, 윤증(尹拯)이 작고한 다음 해인 1715년(숙종 41) 5월부터 손자 윤동원과 종손자 윤동수가 문인 양득중(梁得中) 등과 함께 이산(尼山)의 정사(淨寺) 분암(墳庵)에 모여 윤증의 유문(遺文)을 수집하여 1732년 4월에 『명재유고(明齋遺稿)』를 간행하기도 하였다.

이밖에 분암은 문중의 종회례(宗會禮)를 행하는 장소로도 사용되었다. 이는 다음의 『명재유고(明齋遺稿)』 1권에 실려 있는 윤증의 시(詩)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신묘년 10월에 부친을 모시고 장구동(長久洞)에 소분(埽墳)하고 한천(寒泉)으로 들어가서 여러 숙부·형제들과 모여 함께 분암(墳庵)에서 자고, 이튿날 아침에 종회례(宗會禮)를 행하였다. 술에 취하여 ‘화발다풍우 인생족별리(花發多風雨 人生足別離)’로 운을 나누어 시를 지었는데, 나에게는 생(生) 자가 배당되었다.

위의 내용에 의하면, 윤증은 분암에서 종친들과 종례회를 하면서 시를 지었다고 되어 있다.

분암에서는 족보도 간행하였다. 파평윤씨 정정공파의 분암인 성재암에서는 1750년 정정공파 파보(派譜)를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2009년 6월 대웅전을 중건하고자 성재암 요사채를 헐어낼 때 지붕 밑 천장 위에서 그 당시 족보를 찍어내던 목판이 132판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³⁴⁾

이와 같이 분암은 조선초기에는 화장 후 유골을 모셔두고 승려가 재(齋)를 지내던 곳이며 유골을 매장하여 묘역을 조성한 후에는 묘역을 수호하고 정기적으로 불교식 재(齋)를 올리며 망자의 명복을 빌어주던 곳이다. 화장이 금지된 이후에도 장례 후 망자를 위한 불교식 제례를 지내기 위해 사대부가에서 널리 건립되었다. 이후 분암은 점차 유생들의 시회 또는 강학장소로 활용되었고, 종인들의 종회 장소와 문집이나 족보를 편찬하거나 보관하는 장소로도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4) <중부일보> 2009년 6월 25일자.

제 3 절 분암의 형태와 운영

1. 분암의 형태

조선시대 분암의 모습을 정확히 알려주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현재 주재하는 분암과 분암이 변화한 재실에서 원래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조선시대 분암의 초기 형태는 과주의 월릉면 아가피 조감(趙堪 1530~1585)의 분묘 아래 조성된 ‘오봉암(五峯庵)’에서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그림 1>³⁵⁾이 참고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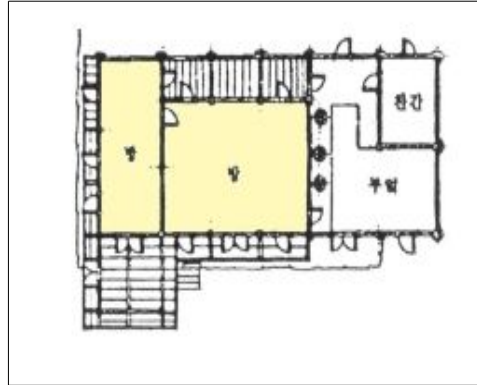


<그림 1> 건립 초기의 오봉사

위의 사진에 의하면 분암인 오봉암의 초기 모습은 방 하나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것으로 볼 때 조선시대 분암의 단순한 형태는 방 하나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분암이 유골을 모셔두고 상장의례를 지내던 장소에서 연원하였기에 그런 기능에 적합할 정도의 소박한 규모로 분암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35) 趙在天, 『漁溪先生 行蹟과 後孫』, 1993. p.22.

그렇지만 치재(致齋)의 장소로서의 분암의 기능이 강화되고, 승려들이 상주하면서 분암에는 추가적인 시설이 설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19세기에 만들어진 진성이씨의 분암인 구가암(九佳庵)이 참고가 된다.³⁶⁾



<그림 2> 진성이씨 구가암의 구조

출처: 김동인, 「조선후기 재실건축의 배치와 평면유형에 관한 연구」

두릉(杜陵) 이제겸(李濟兼, 1683~1742)의 묘소를 수호하기 위해 1825년 봉화군 법전면 늘산리에 건립된 진성이씨의 구가암은 ㄱ자 형의 단일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건물은 중앙에 큰 방이 있고, 그 좌측에 작은 방이 있으며, 부엌과 침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승려가 상주하게 되면서 거주하는 방과 취사시설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후기 종중에서 치재 이외에 수학(修學)·족보 편찬·종회 등의 목적으로 활발하게 이용하면서, 분암의 구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그 규모도 커져갔다. 예안지역 권겸(權謙)의 분암 봉선암(奉先菴)은 규모가 29칸이나 되었다.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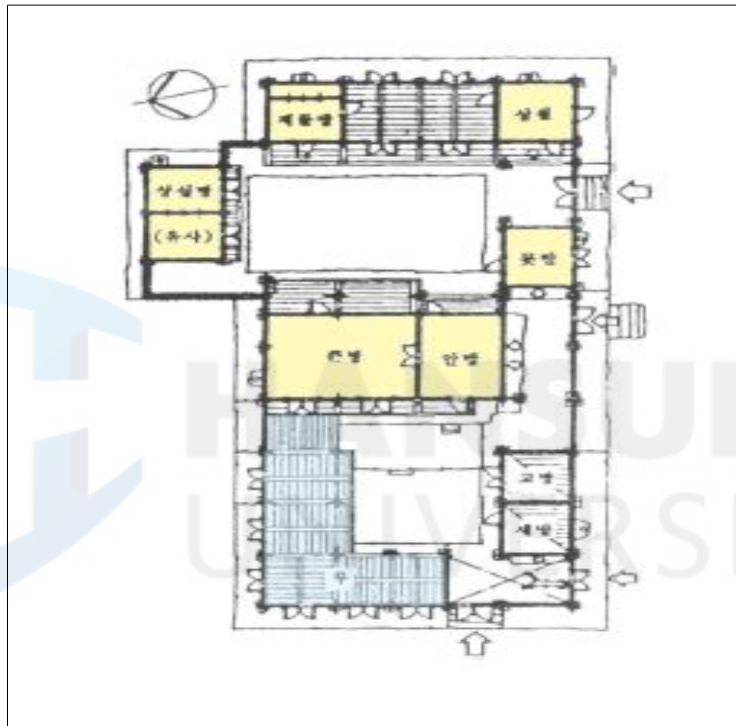
그리고 왕으로부터 편액을 하사받고 사패지를 분급 받은 사액분암은 왕

36) 김동인, 전계논문. p.54.

37) 국역선성지발간추진위원회, 『국역 선성지(宣城誌)』, 1993, p94. 유기원, 전계서, p.147에서 재인용. 「선성지(宣城誌)」는 예안(禮安) 읍지(邑誌)를 말한다. 지금의 예안은 안동군에 딸린 1읍 14개면 가운데의 하나이지만 「선성지」가 만들어질 당시만 하여도 예안은 독립된 현으로 퇴계 선생이 탄생한 유교문화의 중심지로서 주목 받은 고을이었다.

실의 지원을 받아 규모가 상당하였다. 예컨대 세조대에 건립된 파평윤씨의 성재암은 무려 36 칸에 이르렀고, 수십 명의 수호승군이 배치되었다. 또 첨파루((瞻坡樓)라는 강당을 갖고 있었다.

1800년대 경북 봉화군 해저마을에 지어진 의성김씨의 분암 급시암³⁸⁾은 일자형의 단순한 배치이지만 구가암에 비해 훨씬 발전된 구조를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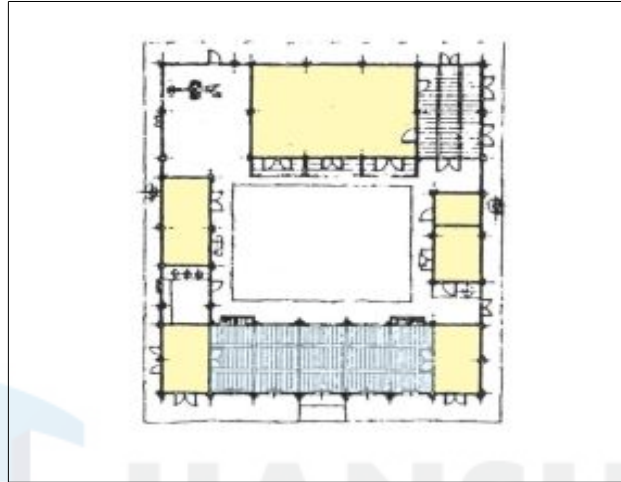
<그림 3> 의성김씨 급시암의 구조

출처: 김동인, 「조선시대 재실건축의 배치와 평면유형에 관한 연구」

가장 뒤쪽에 강당 형식의 재실과 제물방과 상실이 있고, 건물의 중앙에 통칸방과 부엌이 있다. 또한 고방과 새방이 우측 입구 쪽에 있었으며, 유사(遊舍)의 방이 좌측에 있었다. 큰방은 법당으로 사용하고 안방은 승려가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며, 고방은 창고였을 것이다. 분암의 기능이 다양하게 되면서 분암의 규모가 커지고 구조도 복잡해졌던 것이다.

38) 김동인, 전제논문 p.54.

1600년대 무의공 박의장의 묘소를 수호하기 위해 사찰을 구입하여 만들어졌고, 200~300년에 걸쳐 증축된 무안박씨의 집회암(集喜庵)도 초기의 분암에 비해 발전된 모습을 띠고 있다.³⁹⁾



<그림 4> 무안박씨 집회암의 구조

출처: 김동인, 「조선후기 재실건축의 배치와 평면유형에 관한 연구」

위의 <그림 4>에 의하면, 전면 3칸, 측면 2칸의 큰 방이 있다. 이 방은 법당 혹은 재실로 판단된다. 분암의 중앙 좌측에는 전면 1칸, 측면 2칸의 고방이 있다. 그리고 중앙의 우측에는 승려 또는 재직이 거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방과 부엌이 있다. 아랫부분에는 마루로써 좌우가 연결되는 두 개의 방이 있다. 마루는 시회·종회 시 문중의 사람들이 모였던 강당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두 개의 방은 문중 사람들이 묵었던 공간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듯이, 초기의 분암은 법당과 승려가 썼던 방과 부엌으로만 조촐하게 지어졌다. 그 후 차츰 묘제시 재숙을 위한 방과 창고 등이 추가로 건립되었고, 강학이나 종회를 위한 누각과 강당이 추가로 만들어졌다.

39) 문화재지식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info.cha.go.kr/덕후루> 참조. 중심건물인 집회암은 1600년대에, 전면의 덕후루는 1700년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1960년대까지는 집회암 뒤쪽으로도 건물이 있어 전체적으로 日자형의 배치였다고 한다.

요컨대, 분암은 초기의 치재를 위한 단순한 형태에서 점차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잡한 구조로 발전해왔던 것이다.

2. 분암의 관리와 운영

분암은 일반 거주지와는 다소 떨어져 있거나 산중에 있는 경우가 많아 이곳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거주하면서 관리할 인원이 필요하였다. 17~18세기까지는 승려가 거주하며 관리와 운영을 하였다. 앞서 살폈듯이, 1555년에 세워진 안동 진성이씨의 분암 수곡암(樹谷庵)은 창립 당시 고산승 설희가 관리하고 있었다.⁴⁰⁾ 택당(澤堂) 이식(李植 1584~1647)의 「홍 판서(洪判書)의 분암(墳菴)에 들러」라는 시에 나오는 분암도

말을 버리고서 북쪽 언덕 넘어서니 / 捨馬越北崗
눈앞에 전개되는 용문산 자락 / 龍門當我前
기원정사(祇園精舍) 그 땅은 비록 좁아도 / 祇園雖地窄
방장실(方丈室)은 서까래가 늘씬하구먼 / 丈屋尙脩椽
사미승(沙彌僧)은 동냥하러 산 내려가고 / 沙彌下乞米
늙은 중이 나와서 반갑게 맞이하며 / 老宿相差肩
(하락)⁴¹⁾

라고 하여, 적어도 노승 및 사미승 두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분암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분암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파주의 파평윤씨가의 분암인 성재암에는 승려 외에도 재직이 있었고⁴²⁾, 묘를 관리하는 묘직(墓直)과 산을 관리하는 산직(山直)도 각각 5명

40) 이황(1501~1570), 「樹谷菴記」(1557) 退溪先生文集 卷之四十二, ‘...歲之庚戌 合族謨議立齋舍以供祀事 蓄穀陶瓦 令孤山僧雪熙幹其事.....惟世之爲是者 或出於佞佛求福之意 則大不可 今是菴也 未免守之以其徒 故置僧寮 然 堂爲主而寮爲附 一嚴於奉先之體 而供薦之事 未嘗及焉 則亦何嫌之有哉.....’유기원, 진계서, p150에서 재인용.

41) 이식, 『澤堂先生續集』, 1권. 17세기 초 간행.

42) 파평윤씨 종중에서 재직과 산직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종중에서 소장하고

이나 있었다.⁴³⁾ 그리고 선성읍지인 『국역 선성지(宣城誌)』의 「봉선암(奉先菴)」에 관한 기록에는

봉선암(奉先菴)

동지 권수익 부모 참판공 및 전설 정부인 김씨, 후설 정부인 반씨는 갈전산에 장사했다. 가정시대(1552-1566)에 재사를 지었다. 재사는 29칸인데 봉선암이라고 이름짓고 중에게 명하여 그곳을 지키게 하였다. 중 20인이 항상 거처하였다. 애석하도다. 세대가 멀어지고 재력이 점차로 못해져서 중들은 관리의 침노를 입어서 지금은 폐허가 되었으니 고금을 슬퍼하는 한을 어찌 요량할 수 있으랴⁴⁴⁾

라고 하여, 무려 20명의 승려가 권겸의 분암인 봉선암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분암과 묘소 등을 수리할 경우에는 문중의 종인들이 나서서 수리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주의 과평윤씨 성재암의 예를 통하여 짐작해볼 수 있다.⁴⁵⁾

분암을 관리하는 승려들은 망자의 명복을 비는 불공을 드리고, 치제 시의식을 담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묘역과 선산 관리, 위전(位田)의 운영을 담당하였다. 1555년에 세워진 안동 진성이씨의 분암 수곡암(樹谷庵)의 경우에는 고산승 설희가 치제뿐만 아니라, 곡물의 저축, 기와의 제작도 담당

있는 문서 1906년(丙午) 9월에 번미봉상(番米捧上)기록에는 순산(巡山)비용으로 쌀 335刀를 지급(支給)하고 별직(別直)에게는 쌀 5刀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2~3인이 순번순산(順番巡山)한 것에 대한 비용과 분암 내에 있던 재실을 관리하는 재직에 대한 보수라고 보여진다. 이와 같이 순산(順山)에 대한 비용과 산직(山直)에게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기록은 1921년(辛酉) 10월에 작성된 또 다른 문서인 『대종계 수봉기(大宗稷 收捧記)』에서도 나타난다. 여기에는 순산료를 각 1섬 열말씩 지급했으며 산직에게는 각 15말씩 지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로 볼때 조선시대에도 역시 성재암에 산직과 재직이 있어 관리하였으리라 추정된다.

43) 1919년(己未) 2월 20일자 윤씨 교하중중 문서 『묘사수리시종회(墓舍修理時宗會)』에는 묘직(墓直) 최수복(崔守卜) 외 5명의 명단과 산직(山直) 권학준(權學俊) 외 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도 대체로 이와 같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44) 국역선성지발간추진위원회, 『국역 선성지』, 1993, p94. 유기원, 전게서, p.147에서 재인용.

45) 1919년(己未) 2월 20일자 윤씨 교하중중 문서 『묘사수리시종회(墓舍修理時宗會)』에는 묘사수리시(墓舍修理時) 출역자(出役者)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현영(憲永) 외 62명과 불참인 완수(浣秀) 외 16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앞에 성씨가 적히지 않았으니 모두 윤씨이다. 묘사는 성재암인 듯하다. 조선시대에도 성재암의 수리 시에는 대체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원을 차출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고 있었다.⁴⁶⁾

이와같이 분암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예불, 치재, 수묘, 전지(田地)와 산지(山地)의 관리 등의 임무를 각각 전담하여 관리하였다. 즉, 승려 외에 재직, 묘직, 산직 등이 있어 맡아서 처리하였다.

분암의 운영은 문중에서 출연한 자금으로 마련한 제위전(祭位田)의 소출로써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파평윤씨 시조 윤신달의 묘역 아래 건립된 분암(墳庵)인 봉서암(鳳棲庵)의 기록이 도움이 된다.

경상북도 포항시 기계면 봉계리 운주산에 있는 파평윤씨의 시조 윤신달의 묘역에 있는 봉강재는 일시 실전되었다가 1739년에 양래공(陽來公)이 경상감사로 부임한 후 7일만에 걸쳐 그 주위를 파헤쳐 묘소를 되찾았는데 10여년이 지난 1751년에 27대손 광소공(光紹公)이 안동부사로 부임하여 분암(墳庵)인 봉서암(鳳棲庵)과 재사(齋舍)를 창건하고 승도(僧徒)로 하여금 묘역을 수직(守直)케 하며 제기의물을 완비하였다. 그 때에 광소공(光紹公)은 전문(錢文) 50량(兩), 재목 15간, 제사용 기물 일절을 자담(自擔)하였고, 경상감사로 부임한 26대손 동도공(東度公)이 전문(錢文) 80량(兩), 위토 一석(石)지기(240兩), 정조(正租) 180석 등을 헌납하였으며 그 외에 후손들의 성금이 많이 거두어 졌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경상도 지방에 수령으로 부임하는 후손들은 반드시 위토를 헌납하게 되어 많은 위토가 마련되었다.⁴⁷⁾

위의 글에 의하면, 1751년 이후부터 경상도 지방에 수령으로 부임하는 파평윤씨 후손들은 분암의 운영을 위해 전과 곡을 출연하였고, 이것으로 위토를 마련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것을 통해 분암의 운영이 위토의 소출로써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액분암일 경우에는 조정으로부터 제사에 쓸 물품을 하사받거나, 제수비용을 받아 제례를 올렸다.⁴⁸⁾

46) 이황(1501~1570), 「樹谷菴記」(1557) 退溪先生文集 卷之四十二, “...歲之庚戌 合族議議立齋舍以供祀事 蓄穀陶瓦 令孤山僧雪熙幹其事.....惟世之爲是者 或出於佞佛求福之意 則大不可 今是菴也 未免守之以其徒 故置僧寮 然 堂爲主而寮爲附 一嚴於奉先之體 而供薦之事 未嘗及焉 則亦何嫌之有哉....”유기원, 전개서, p150에서 재인용. 경술년(1550년)에 일가가 모여 재사를 세워 제사를 받들 것을 의논하고 곡물을 저축하고 기와를 구우면서 고산승(孤山僧) 설희(雪熙)로 하여금 그 일을 보살피게 하였다.

47)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영남 유교문화유물(<http://www.ugyo.net>)

제 4 절 분암의 위상 변화

불교의 장례 시 유골을 보관하는 데 사용되었던 분암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치재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재사 또는 재실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는 송시열(宋時烈)이 선조(宣祖)의 12번째 아들 인흥군(仁興君) 이영(李瑛, 1604~1651)의 재실(齋室)의 사적을 기록한 「정효공인흥군분암비기(靖孝公仁興君墳菴碑記)」를 통하여 알 수 있다.⁴⁹⁾ 이 분암비기의 내용에 따르면 “1651년(효종 2)에 인흥군(仁興君)이 죽자 이듬해 영평(永平)에 장례를 지냈는데, 아들인 낭선군(朗善君) 우(偶)와 낭원군 품(偏)이 송시열에게 신도비명을 부탁하고, 묘소 옆에 제사를 지내기 위한 재실(齋室)을 지었는데 이곳이 너무 협소하여 조정에서 의논하여 넓혀지었다.”고 되어 있다. 요컨대, 비문의 제목에서는 ‘분암’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였지만, 비문의 내용에서는 ‘재실’이라는 어휘를 사용할 정도로, 이 시기에는 ‘분암’과 ‘재실’이란 용어가 혼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유교사회인 조선시대에는 유교질서가 확산되면서 불교시설인 분암이 불태워지기도 하였다. 예컨대 세종 31년(1449) 6월에 전라도 능성현(綾城縣)의 교생(校生) 양회(梁淮) 등이 현령(縣令) 최추(崔湫)에게 고하고 허락을 받아 재암(齋庵) 11곳을 불태우기까지 하였다⁵⁰⁾는 기록이 있다.

또한 유교질서의 확산으로 묘제(墓祭)가 성행하면서 유교적 시설인 재실 또는 재사 건립이 요청되었다. 그리고 가족 및 친족체계의 변화로 부계친족 중심의 문중조직이 발달하고, 동족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족보 편찬 등의 사회적 변화가 발생하면서 재실의 건립이 일반화되었다.⁵¹⁾

이에 따라 불교적 시설인 분암은 유교적 시설인 재사 또는 재실로 변모

48) 파평윤씨 정정공파 종손 윤성익씨가 소장하고 있는 1916년, 1917년, 1920년에 이왕직회계과(李王職會計課)에서 온 제수비용 송금통지서가 있어 파산부원군 윤지임에 대한 제사비용 17원19전을 해마다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종손 윤성익씨와 파평윤씨 종중 유사 윤훈덕씨는 일제시기 이전에는 제수용 물품을 직접 조정으로부터 받았다고 전한다. “送金通知書, 一金 壹拾七圓拾九錢, 坡山府院君祭需代金, 右日本爲替(證書送達)送金候條及通知候也, 大正 五年(1916) 二月 日/ 6年(1917) 1月 26日/ 9年(1920), 李王職會計課”

49) 탁본첩, 宋時烈 記, 李瑛 書, 간행연도 미상.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50) 『조선왕조실록』, 세종 125권, 31년(1449) 8월 15일(임술) 2번째 기사.

51) 이해준, 「朝鮮後期 門中活動의 社會史的 背景」, 『東洋學』 23집, 1993, p.202.

하였다. 안동시 와룡면에는 고려 공민왕 때 판서를 지낸 영양남씨(英陽南氏) 남취주(南暉珠, 1326~1372)와 그의 아들 민생(敏生)의 분묘를 위한 남흥재사(南興齋舍)가 있는데, 이는 1500년대에 기존의 남흥산(南興山)에 있던 암자 남흥사(南興寺), 즉 분암을 개조한 것이었다.⁵²⁾ 이 외에 경북 안동에 있는 안동권씨 소등재사(安東權氏 所等齋舍),⁵³⁾ 안동 송실재(安東 崇室齋)⁵⁴⁾ 안동김씨 장재사(安東金氏 台庄齋舍)⁵⁵⁾, 흥해배씨 가수천재사(興海裴氏 嘉樹川齋舍)⁵⁶⁾ 등도 분암에서 발전하였던 재사이다.

다만 분암에서 행하던 기능은 재사 또는 재실이 흡수하여 17세기 이후 규모가 큰 재사 안에는 분암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1751년 경상북도 포항시 기계면 봉계리 운주산에 만들어진 과평윤씨의 시조 윤신달을 기리는 봉강재(鳳岡齋)에는 분암인 봉서암(鳳棲庵)이 별치되고, 승도(僧徒)를 두어 묘역을 수직(守直)케 하였다.⁵⁷⁾

그러나 재사 안에 설치된 분암은 유교적 활동이 강화되면서 철폐되는

- 52) 1563년 진성이씨 종손인 연(演)과 희안(希顔)이 함께 사망하고 난 후, 체천(遞遷)의 대상이 된 이정(李禎)의 위패에 대한 처리를 의논할 때에도 퇴계 이황이 이정의 묘소에 '가창사(可倉寺)'가 있다는 것을 운운하면서 거기에 1칸의 사당을 지을 것을 권유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당시 이곳에 사찰인 '가창사'가 있었고 이곳이 뒤에 가창재사가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眞城李氏世傳遺錄』 - 7代祖, 김문택, 「안동 진성이씨가 재사의 건립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 통권 27호, 2003. pp104에서 재인용.
- 53) 안동시 와룡면 태리에 있으며 안동 권씨 북야파 권곤(權琨, 1427~1502)공의 묘를 수호하기 위한 재사. 당초에는 사찰이었으나 폐사(廢寺)된 것을 인수하여 영조2년(1726)에 내당인 추원재(追遠齋)를 세우고 이듬해에 '口'자형으로 확장하여 재실(齋室)로 사용하여 오고 있다. 안동민속박물관, 『安東의 懸板』, 2009, p.266
- 54)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에 있으며 풍산부원군(豊山府院君) 류중영(柳仲郢, 1515~1573)선생의 묘제를 받들기 위한 재사로서 몸체인 송실재(崇室齋), 영모루(永慕樓)와 부속사가 연이어져 장방형의 'ㄷ'자형 집을 이루고 있다. 몸체는 1987년 보수 때 발견된 영조12년(1736)의 상량문(上樑文)에 의하면 본래 능효사(陵孝寺)의 한 전각(殿閣)이었는데, 풍산(豊山) 류씨(柳氏)의 재사로 인수하여 명종 13년(1558)에 중수하고 광해군14년(1622)에 보수하였다고 한다. 안동민속박물관, 『安東의 懸板』, 2009, p.299
- 55) 안동시 서후면 태장1리에 있으며 안동(安東) 김씨(金氏) 시조 김선평(金宣平)공의 단소(壇所)를 지키고 봉제(奉祭)를 위한 재사이다. 재사 가까운 지역에는 신라시대부터 천대암(天台庵)이 있었다 한다. 설단 이후 단소 동쪽 10보 내에 숙종37년 경 소옥을 지었다가 영조25년(1749)에 재사를 확장하였으나 식수단과 질병이 겹쳐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양근(養根)공이 경향각처의 뜻을 모아 현 위치에 승려의 집을 철거하고 터를 닦아 정조17년(1793)에 28칸을 중건하고 익실(翼室)과 문루(門樓)를 옮겨지었다. 안동민속박물관, 『安東의 懸板』, 2009, p.486
- 56) 안동시 와룡면 서저리에 있으며 안동 最古의 읍지인 『영가지』 권 6 「불우(佛宇)조」에 보면 가수암(嘉樹庵)이라는 암자가 나온다. 바로 이 암자가 현재의 흥해배씨가 수천재사의 전신이다. 건물은 '口'자형 목조기와로 효사암(孝思庵)이라는 현판 뒤 '一'자형 별채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안동민속박물관, 『安東의 齋舍』, 2009, p.398
- 57)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영남 유교문화유물(<http://www.ugyo.net>)

운명에 처하였다. 앞의 봉강재 내의 분암도 서원이 건립되고, 별묘가 건립되는 과정에서 철폐되고 말았다.

분암은 문중의 구성원들에게 동족의식을 강화하고 학문을 장려하는 종학당으로 변모하기도 하였다. 충남 노성면 병사리에 있는 파평윤씨 노종과의 문중서당인 종학당은 분암인 정수암(淨水庵)에서 발전하였다고 한다.⁵⁸⁾

분암이 재사 또는 재실로 또는 서원이나 정사로 변화해 가는 경우가 있지만 분암의 불교적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찰로 존립해오는 경우도 있다. 파주의 파평 윤씨가(坡平尹氏家)의 분암 성재암(聖在庵)과 함안 조씨가(咸安趙氏家)의 오봉사(五峰寺)가 그 경우이다. 성재암은 재실이 당대에 같이 건립되었다가 재실의 기능은 없어지고 사찰의 기능만 남아 문중절로 존립해왔다. 성재암은 현재 조계종단에 소속된 봉선사 말사이다. 파주 월릉산 아가피 마을 함안 조씨의 분암 오봉사는 창건 당시에는 암자만 있다가 현대에 와서 재실이 따로 건립되어 향사나 제사는 재실에서 지내고 분암은 문중사찰로 존립하면서 문중을 위한 기도를 올려주고 있다. 이 사찰은 아직 종단에 소속되지 않고 있다.

58) 이해준, 「종학당의 역사와 변천」, 『파평윤씨 노성종학당』, 공주대학교박물관, 2006, pp.29~52. 이 종학당은 파평윤씨 종중의 자녀와 문중의 내외척, 처가의 자녀들까지도 합숙, 교육 시키기 위해 1628년경에 동토 윤순거(1596~1668)가 건립하였다. 그는 4촌 윤원거와 아우 윤선거와 같이 종약 및 가훈을 제정하고, 종학을 창설했으며 자신이 초대 당장이 되어, 책, 기물, 재산 등을 마련하는 등 초창기 학사운영의 기반을 닦았다. 이 종학당의 전신은 병사(丙舍:재실)이며, 그 이전에 종학당 뒤편에 있는 정수암(淨水庵)과 정수루(淨水樓)·백록당(白鹿堂)이 먼저 건립되어 있어서 종학당 건립의 단초가 되었다. 정수암은 비봉산 파평윤씨 선영의 분암으로 스님이 상주하고 있었고, 이곳을 중심으로 종회 모임이 많이 행해졌다. 종학당에 걸린 「종학당기」(1829년, 윤심규(尹心圭) 기(記))의 후기에는 종학당이 원래 유봉에 있었으나, 기축년(1829년)에 분암(정수암)의 아래(현재의 종학당 위치)로 옮겼다고 기록하고 있다.

제 3 장 파주지역 분암의 유형과 특성

제 1 절 파주의 지역적 특성

서울의 서쪽에 위치한 파주는 고려의 도읍인 개성 및 조선의 도읍인 한양에서 아주 가까운 근기(近畿)이다. 개성에서 불과 19km 떨어져 있으며, 한양에서는 30km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파주 지역은 한양에서 육로와 해로로 서쪽과 북쪽으로 가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다. 한양에서 평양을 거쳐 중국으로 가는 의주대로가 이어질 뿐만 아니라, 한강과 임진강을 통하여 국내 어디와도 연결될 수 있는 해상교통상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 도성과의 접근성이 용이해 사족들이 벼슬생활을 할 때는 서울에서 생활하다 벼슬에서 물러나 있을 때는 파주의 향제(鄉第:휴식과 학문연마의 장소)·별서(別墅)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왕실의 외척과 사족들은 매입하거나 하사받아 이곳에 광대한 토지와 선산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즉 파주지역에는 명문대가가 출현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파주에는 고려시대에 파평 윤씨(坡平尹氏), 교하 노씨(交河盧氏), 파주 염씨(坡州廉氏) 등 파주를 본관으로 하는 가문이 번창하였다. 그리고 청주 한씨(淸州韓氏), 강릉 김씨(江陵金氏), 순흥 안씨(順興安氏), 창녕 조씨(昌寧曹氏) 등의 가문도 유력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세조의 정희왕후, 성종의 정현왕후, 중종의 장경왕후·문정왕후 등을 배출한 파평 윤씨와 세종의 소헌왕후와 숙종의 부마를 배출한 청송 심씨(靑松沈氏), 영조의 부마 집안인 반남 박씨(潘南朴氏) 등의 가문이 위세를 떨쳤다. 이밖에 율곡 이이의 덕수 이씨(德水李氏), 황희 정승의 장수 황씨(長水黃氏), 휴암 백인결의 수원 백씨(水原白氏), 우계 성혼과 용재 성현의 창녕 성씨(昌寧成氏) 등도 파주지역에는 명문거족이었다.

파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 중에 가장 번성한 가문은 파평 윤씨(坡平尹氏)이다. 태조 왕건을 도와 후삼국을 통일한 공으로 고려의 개국공신에 책봉된 윤신달(尹莘達)을 시조로 하는 파평윤씨는 5세(世) 윤관(尹瓘)의 일

곱 아들 중에서 여섯째 언이(彦頤)의 후손이 파주에 세거하면서 파주지역의 명문대가로 성장하였다. 판도공파(版圖公派)는 언이의 8세손 승례(承禮)를 중시조로 한다. 승례(承禮)의 4남 번(璠)이 정정공파(貞靖公派)로 갈라졌으며, 이 정정공파가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의 집안이다.

정정공파의 시조 번(璠 1384~1448)은 고려말 판도판서(版圖判書) 승례(承禮)의 넷째 아들로 자녀 중 제7녀가 수양대군에게 출가하여 후에 정희왕후가 되었다. 그는 공조참의·경기도도관찰사·대사헌·판중추원사를 역임하고, 영의정에 추증되고, 파평부원군(坡平府院君)에 추봉되었다. 시호는 정정(貞靖)이다.

번의 묘는 교하읍 당하리 정정공파 묘역에 있으며, 그 아래에 부인 인천이씨 묘가 있다. 당하리 정정공파 묘역에는 번의 3남 사흔(士昕), 중종 비(妃) 장경왕후(章敬王后)의 아버지 여필(汝弼), 중종의 계비 문정왕후(文定王后)의 아버지 지임(之任), 을사사화의 주역 원형(元衡)의 묘소 등 정정공파 후손의 묘 32기가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후손 묘까지 600여기가 구성되어 있다. 파평윤씨의 후손들은 선영(先塋)을 마련하고 제사봉공(祭祀捧供)을 하며 누대를 이어가고 있다. 윤번의 7녀 정희왕후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교하 와 동산에 예장을 마치고 분암인 성재암을 건립하여 아버지의 명복을 빌었다.

파주지역에 오래전부터 세거해 오던 문중들은 파주에 묘산을 조성하면서 묘역 아래 분암을 건립해왔다. 조선시대 파주에는 능곡(陵谷) 성안제(成安祭)의 분암인 악암사가 내포리 창녕성씨 선영에, 청송 심씨(沈氏)의 분암이 월룡(月籠) 11사(寺) 내에, 황희의 분암인 영신암(靈神菴)⁵⁹⁾이 금승리 장수 황씨 선영에, 교하 와석면(瓦石面)에는 파평 윤씨 분암인 성재암(聖在庵)이 있었다. 그 외에 교하에는 보현산의 보현암(普賢菴)⁶⁰⁾, 평지암(平地菴), 영천암(靈泉菴), 장명산(長命山)의 삼암(三菴) 등의 분암이 있었

59) 장수황씨대중회, 『방촌선생문집(龍村先生文集)』 2001, p.1550. 영신암이 분암이었다는 기록은 『방촌선생문집(龍村先生文集)』에 영신암중수상량문(靈神庵重修上樑文)을 보면 알 수 있다. 영신암(靈神菴)은 장수황씨의 분암으로, 탄현면 금승리 장수황씨의 족장지(族葬地) 내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고, ‘절골’이라는 지명만 남아있다.

60) 보현암은 보현사 창녕 조씨家의 선영 뒤에 있었으나 철폐되었다. 근래에 중건되었으나 분암으로서의 기능은 전혀 하지 않는 개인 절이다.

다.⁶¹⁾ 그리고 월룡면 아가피(峩岾山) 아래 함안 조씨가(咸安趙氏家)의 오봉사(五峰寺)가 있었다.

제 2 절 사액분암 성재암의 운영과 기능

1. 성재암의 관리와 운영

성재암은 조선 제7대 임금인 세조의 비 정희왕후(1418~1483)가 창건하였다.⁶²⁾ 세종 30년(1448) 정희왕후의 친정아버지 파평부원군 윤번(1384~1448)이 졸하고, 세조 2년(1456) 친정어머니 흥령부대부인(興寧府大夫人) 인천이씨(仁川李氏,李文和 딸)가 졸하자, 세조는 의경세자(성종의 생부, 추존 덕종)를 보내 명복을 빌게 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하여 현 위치에 성재암(聖在庵)이란 36칸의 절을 짓고, 목불을 하사하는 한편 수호승군 20명을 파견하여 수호하게 하였다.

그리고 왕실로부터 사패전을 받았다. 지산(芝山) 윤구영(尹龜永, 1823~1888)⁶³⁾이 지은 『찬수록(纂修錄)』의 「성재산기(聖在山記)」에는 파평부원군 윤번의 예장 때 사패전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恭襄公墓前大防禦而止局勢圓布收若盤龍重崗複嶺枝分穴結正如 泰伯所云路蹊蟠蔚前後相失崗岳峯嶺左右馳突者不相差矣小水出山谷間流入干堤堰東望 不指點而欽頌耶外局砂脚間 支石青巖兩面地則靖憲靖平禮葬時 朝家量賜 恩牌使免民田之逼仄乏給司護軍十二名環其火巢幅圓幾十許里中有一清寺每於朔望諸宗展禮省掃禁養松楸樵牧不得入可卜永世勿替之休矣敬記山形局并卷首且書 先代墓向以附焉庶有助於日後矣

61) 파주군청, 『파주군사』, 1984, p.269.

62) 파평윤씨 교하중증 정정공파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재암은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파평윤씨 교하중증 종산 정정공 윤번 묘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63) 윤구영은 1852년(철종 3) 식년시 병과에 급제하여 이후 벼슬이 도승지(都承旨)에 이르렀으며 『찬수록(纂修錄)』이라는 책을 남겼다.

위의 기록에 의하면, 파평부원군 윤번의 예장 때 성재산을 사패지로 받았다고 하므로, 이것은 파평 윤씨의 묘역과 관련이 있고, 성재암의 운영과도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파평윤씨 종중은 경내에 재실인 본방능재(本房陵齋)⁶⁴⁾를 짓고 이후 강당 침파루(瞻坡樓)를 지어 종회나 강학당 등으로 이용하였다. 종중의 비 문정왕후의 아버지 파산부원군 윤지임의 사후 묘역이 성재산에 조성되면서 성재암에 소속된 승군이 늘어나기도 하였다.

파평윤씨 종중은 사패로 받은 위토답에서 성재암의 운영자금을 마련하였을 것이다. 다만 그 위토답의 구체적인 운영과 활용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일제시대와 현재까지 위토답을 운영하고, 소작인으로부터 제사료(祭祀料)를 받았던 사실로 볼 때, 조선시대에도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리라고 판단된다.⁶⁵⁾

이밖에 묘역을 지키는 수호군(守護軍)의 명단을 기록한 문서도 찾아볼 수 있다. 1860년(철종 11) 11월에 작성된 『윤본방삼위묘수호군(尹本房三位墓守護軍)』이란 문서에 기록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⁶⁶⁾

咸豐10년 11월 交河郡
『尹本房三位墓守護軍』
咸豐10년 10월 交河郡

坡平府院君房守護軍
都山直金長金年十八父貴宗 住瓦野

64) 본방능이란 부원군의 묘를 말한다. 이 용어가 파평윤씨 족보에 처음 나오는 것은 20世 윤원개(1535년 卒) 때 부터이다. 묘가 파죽군 교하면 본방능 서쪽에 합장묘이며 묘갈이 있다고 기록하였다. ‘墓 坡州君 交河面 本房陵 西原合葬有碣’ 『파평윤씨세보』 1750년(庚午譜).

65) 파평윤씨 문중 문서 중에 1960년에 기록된 『방축동수세수봉책(防築洞水稅收捧冊)』을 보면 위토 제사료수입기(位土祭祀料收入記)에 尹翊秀 一斗五升, 趙漢熙 三斗五升, 尹鎭秀 一斗 등 10명으로부터 총 37斗 5升을 거두었다고 하여 수세 중에서 따로 제사비용을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坡平尹氏芝山宗中, 檀紀4293年陰庚子 十月(1960년), 『防築洞水稅收捧冊』 ‘位土祭祀料收入記’

66) 여기에서 윤본방 삼위라 하면 왕비의 아버지가 되는 세 부원군을 일컫는다. 파평부원군(坡平府院君)은 세조의 장인 윤번(尹璠, 1384~1448)이고, 파원부원군(坡原府院君)은 중종의 장인으로 중종 비 장경왕후(章敬王后)의 부친 윤여필(尹汝弼, 1466~1555)이고, 파산부원군(坡山府院君)은 중종의 계비 문정왕후(文定王后) 아버지인 윤지임(尹之任, 1475~1534)이다. 이들 세 묘역은 분암 성재암 주위에 있으며, 이들 불천지위 신주를 모신 사당은 파산부원군 윤지임 묘역 아래 있다.

私奴張阿只年十八父受命 住○葛
私奴金者○吉年十三父五良 住瓦堂
私奴○○○年十父命用 住瓦堂
私奴○○○年四父元赤 住瓦堂

(중략)

合拾貳名

坡原府院君房守護軍

私奴故代高阿只年二父學奉 甲子 七月初五日 住瓦當

私奴劉守萬年十二父南生 住瓦堂

(중략)

合拾貳名

坡山府院君房守護軍

私奴○判先年三十七父命業 住瓦堂

(중략)

合拾貳名

都合參十陸名

行郡守 [署押]

이들 세 부원군의 묘역을 수호하기 위해 한 묘역당 12명씩 모두 36명을 묘수호군으로 배정한다고 교하군수가 인정하고 서명하였다. 내용의 첫 부분을 보면, 파평부원군의 책임수호군 김장금은 18세이며 아버지는 귀종이고 와야리에 산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사노들은 2살, 4살, 10살, 12살, 13살 등의 어린이이고, 이들의 이름 뒤에 각각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실제 수호군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장성하면 수묘의 역할을 맡을 예비 수호군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파평윤씨 교하문중에서 보관하고 있는 1906년(고종 10) 9월 작성 「번미봉상(番米捧上)」이란 문서에는, “순산(巡山)비용으로 쌀 335도(刀)⁶⁷⁾를 지

급(支給)하고, 별직(別直)에게는 쌀 5도(刀)를 지급하였다”⁶⁸⁾는 내용이 있다.⁶⁹⁾ 이를 통해서 보건대, 특별히 묘를 보수할 경우나 순번을 정해 산을 순찰(順番巡山)할 경우에는 참가한 윤씨 종인들에게 비용을 제공하고, 이에 참여한 재직·산직에게는 사례비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성재암의 기능

정희왕후의 친정부모 정정공 윤번과 인천이씨의 장례는 임금의 장인·장모이므로 예장으로 치러졌다. 장례 후 분암 성재암에서는 추천재를 비롯해 기일에는 기신재 등 각종 불교적 제의가 치러졌을 것이다. 이는 이 시기에는 왕실이나 사대부가에서 장례를 치른 후 인근 사찰이나 분암에서 불교적 재를 올리는 일이 일반적으로 널리 행해져 오는 풍습이었기 때문이다. 20명의 승려들이 성재암에 거주하면서 묘역을 수호하고,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공을 드렸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성재암은 종인 자제를 위한 고강(考講)의 장소로도 활용되었다. 파평윤씨의 종인들은 자제들의 등과를 위하여 1805년에 흥학계를 조직하고 그 재원으로 재궁(齋宮)에 모여 고강(考講)하기로 결의하였다.⁷⁰⁾ 이후 성재암의 강학당 첩파루(瞻坡樓)에서 문중의 자제를 교육한 결과 1805년 이후로 조선조 말까지 생원·진사가 20명이 배출되었다. 또 윤구영(尹龜永, 철종 3년 1852년 급제), 윤희영(尹禧永, 고종 16년 1879년 급제), 윤철배(尹喆培,

67) 쌀의 단위로 쓰인 刀는 ‘되’를 한자로 표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68) 이와 같이 순산(順山)에 대한 비용과 산직(山直)에게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기록은 1921년(辛酉) 10월에 작성된 또 다른 문서인 『대종계 수봉기(大宗契 收奉記)』에서도 나타난다. 여기에는 순산료를 각 1섬 열말씩 지급했으며 산직에게는 각 15말씩 지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1919년(己未) 2월 20일자 『묘사수리시종회(墓舍修理時宗會)』 문서에는 묘사수리시(墓舍修理時) 출역자(出役者)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헌영(憲永) 외 62명과 불참인 완수(浣秀) 외 16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묘사(墓舍)는 성재암을 뜻한다. 묘직(墓直)으로 최수복(崔守卜) 외 5명의 명단과 산직(山直) 권학준(權學俊) 외 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이때는 승려 외에 묘직과 산직이 함께 성재암과 선영을 관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9) 丙午(1906년) 九月 ‘番米捧上’巡山 支給 米 三百三十五刀, 別直 支給 米 五刀.....

70) 계를 창설하였음을 알리는 「창계시통문명첩(創契時通文名帖)에는 윤제우(尹濬宇)외 43명의 이름을 실었다. 입의(立議)다음의 「흥학계좌목(興學契座目)」에는 이를 실천하는 방법과 규약을 담았다.

고종 19년 1882년 급제) 등 세 명이 대과에 합격하기도 하였다.

성재암은 문중절로서 종인들의 구심점이 되어 종인들의 종례회나 선조에 대한 전례를 통해 문중 화합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되었다. 지산(芝山) 윤구영(尹龜永, 1823~1888)은 『찬수록(纂修錄)』의 「성재산기(聖在山記)」에서 성재암에서 종인들이 행하였던 전례 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恭襄公墓前大防禦而止局勢圓布收若盤龍重崗複嶺枝分穴結正如 泰伯所云路蹊蟠蔚前後
相失崗岳峯嶺左右馳突者不相差矣小水出山谷間流人干堤堰東望 不指點而欽頌耶外局砂脚間
支石青巖兩面地則靖憲靖平禮葬時 朝家量賜 恩牌使免民田之逼仄之給司護軍十二名環其火
巢幅圓幾十許里中有一淸寺每於朔望諸宗展禮省掃禁養松楸樵牧不得入可卜永世勿替之休矣
敬記山形局并卷首且書 先代墓向以附焉庶有助於日後矣

이 글에서는 ‘청정한 절[一淸寺 : 성재암]에서 매월 삭망 때 모든 종인들이 청소를 하고 전례를 행하였으며 묘역 주위에 벌목과 도벌을 금지하였다고 하였다. 이를 볼 때 구한말에도 여전히 성재암은 문중절로서 종인들의 구심점이 되어 종인들의 종례회나 선조에 대한 전례를 통해 문중 화합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재암은 파평윤씨의 족보를 편찬하는 장소로도 이용되었다. 파평윤씨 교하종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파평윤씨의 족보는 1539년 기해보(己亥譜)와 1869년 기사보(己巳譜)이다. 그러나 2009년 6월 대웅전을 신축하기 위해 요사채를 헐어낼 때 지붕에서 나온 족보 목판 132개는 형태가 세 가지로 분류되었다. 이로 볼 때 적어도 세 차례에 걸쳐 목판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확인된 연도는 1750년 경오보(庚午譜) 뿐이다.

1869년도에 편찬된 기사보는 춘·하·추·동(春夏秋冬)의 네 권이며, 표지명은 「파평세보(坡平世譜)」이다. 수권(首卷)인 춘(春)편 목차 말미에는 유학자 선필(幼學善弼)이 성재암에서 간행(河齋寺開刊)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와 같이 성재암은 조선전기 세조 때 정희왕후의 친정부모님의 묘역에 사액분암으로 건립되어, 왕실로부터 목불을 하사받고 수호승 20명이 파견

되어 거주하면서 부원군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재를 행하던 곳이다. 이 점은 다른 문중분암과 다른 차별성이라 할 수 있다. 성재암은 이후 파평윤씨 종인들의 종례회나 강학당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문중의 족보를 편찬하고 목판본을 보관하던 장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성재암의 다른 특성으로는 분암 이외에 재실, 강학당 등이 경내에 함께 있었으나, 일제말기 폐철된 이후 다른 건물들은 소멸되고, 사찰의 건물만 재건되어 문중절로서의 기능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안동이나 충남 지역의 분암이 제사나 정사, 별묘, 종학당 등의 건물이 확장 건립되어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존립해온 경우와 다른 양상이라 볼 수 있다.

성재암은 지금은 따로 문중을 위한 제사나, 날을 정하여 전례를 행하지는 않지만 인근의 윤씨 종인들과 지역민들을 위한 불교도량의 기능은 물론, 정희왕후 다례제 등 문화행사도 개최하면서 조계종 사찰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제 3 절 문중분암 오봉사의 운영과 기능

과주 월롱면 아가산(峨嵋山) 아래에 있는 오봉사(五峰寺)는 함안 조씨(咸安趙氏) 분암이다. 월롱면 아가뫼 마을에는 함안 조씨가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는데 이 문중의 분암 오봉사는 옥천(玉川) 조감(趙堪)의 유언으로 지어진 분암이다.

조감(1530~1586)은 휴암(休菴) 백인걸(白仁傑, 1497~1579)의 제자로 찾아와 공부를 하다가 백인걸의 사위가 되었다. 혼인 후 전답과 노비 등을 분배받아 월롱면 아가뫼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다.⁷¹⁾

71) 조감의 스승 백인걸은 그 어머니가 고려 말의 명신(名臣) 우현보(禹玄寶)의 후손 우종은(禹從殷)의 딸로 교하 만우리(萬隅里)가 친경이었고, 또 후처(後妻: 順興安璫 女)가 과주·교하일대에 수만 경의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안목(安牧) 후손 집안사람이어서 일찍부터 월롱산 아래에 우거(寓居)하여 왔다. 대학자인 백인걸이 과주에 거주하게 되면서 청송(淸松) 성수침(成守琛, 1493~1564)의 아들 우계(牛溪) 성혼(成渾, 1535~1598)을 비롯하여 율곡(栗谷) 이이(李珥), 옥천 조감 등이 제자로 찾아와 과산학파(坡山學派)라 일컬어지면서 기호학파(畿湖學派)의 뿌리가 되었다. 조감은 종손이었지만 옥천에서 스승을 찾아 올라와 문하에서 공부를 하다가 스승의 사위가 되어

조감은 임종 당시(1586년 8월 6일) 자손들에게 “내가 죽은 후 아가산(峩嵒山) 아래에 유생(儒生)들을 지도하던 초당(草堂)에 암자(庵子)를 짓고 승(僧)이 묘역을 보호관리 하도록 하라.”는 유언을 남겼다.⁷²⁾ 성리학을 공부하는 유학자로서 자신의 사후에 묘역 근처에 암자를 짓고 승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는 유시는 논리상 어울리지 않지만 당시 대부분의 사족들이 분묘 옆에 분암을 짓는 일이 다반사였기에 조감도 그러한 유언을 내렸을 것이다. 그러나 조감의 사후 당시에는 절을 짓지 못하고 손자 대에서야 오봉암을 지어 스님을 상주케 하여 산소를 수호하고 명복을 빌게 하였다.

오봉암은 처음에는 방 한칸의 암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중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오봉암에는 건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항상 승려가 상주하였으며, 묘제를 지낼 때 오봉사의 스님은 종인들을 위해 장작불을 지펴 몸을 녹이도록 해주기도 하고, 묘역을 잘 살피며 매월 초하루와 열여드레 날에 함안조씨 문중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

이 분암에서는 족보를 편찬하거나 하지는 않았으며, 문중에서 10월 상달에 첫 수확한 쌀을 절에 바쳐 불공을 드리고 기도를 올렸다고 한다.⁷³⁾

오봉사의 특징이라면 오봉암의 전신이 유생(儒生)들을 지도하던 초당(草堂)이었으며, 이를 조감의 사후 암자로 하여 묘역을 수호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보통 분암 건립 이후 분암에서 학문을 도야하거나 시회, 강학장소로 이용하기도 하는데 오봉사는 오히려 그 반대의 수순을 거친 것이다.

이 오봉암은 설립 후 함안조씨 집안에서 분암으로 계속 이용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오봉암은 그 옆에 바가지 우물의 물이 마르자 묘역의 우측 아래 현 지역으로 절을 옮겨 오봉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리고 함안조씨 문중절로서 망자의 명복을 기리고, 문중의 발전을 기원하며, 수묘 등의 기능을 하는 분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과주에 정착하였던 것이다.

72) 趙在天, 『漁溪先生 行蹟과 後孫』, 1993. p.139.

73) 함안조씨 문중의 조윤수(趙允朱)씨의 구술. 7~8년 전에 비구니 스님이 새로 주지로 왔으며 일제 시대에는 대처승이 거주했었다. 절 운영비는 예전에는 조씨 문중에서 대주었지만 요즘은 주지스님이 스스로 운영해 나가며 절 수리비 정도만 문중에서 지원해준다.

제 4 장 결 론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조선시대에 선조의 묘역을 수호하고 명복을 빌며 제의를 지내던 불교적 시설인 분암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검토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분암은 어의적으로 정의하면 ‘무덤가의 암자’를 말한다. 그리고 용례에 따라 설명하면, ‘선영의 묘역 주위에 건립되어 묘소를 수호하고 선조의 명복을 빌며 정기적으로 제를 올리는 것과 관련된 불교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분암은 고려시대에 불교식 화장 장례가 유행하면서 이용되었다. 즉 화장 예식에서는 화장한 유골을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였다가 매장하는데, 이처럼 매장 전 유골을 보관하며 불교적 제를 올리는 곳이 분암이었다. 그리고 분암은 매장 후 묘역 근처에서 묘를 수호하고, 정기적으로 망자의 명복을 비는 불교적 제의를 행하는 곳이었다.

유교사회인 조선시대에 들어와 불교가 배척되고 분암이 탄압을 받기도 하였지만, 분암은 사대부계층에서 널리 활용되었다. 조선 개국 후 15세기 중엽까지 성행하였으며, 16세기 이후 불교식 장례의식이 거의 사라지고 유교식 매장의식이 자리 잡은 이후에도 사대부 문중에서는 승려로 하여금 망자의 천도와 명복을 위한 재(齋)를 지내고, 묘역을 수호하고자 일반적으로 분암을 건립하였다.

조선 17세기 중엽 이후 부계친 중심의 친족결속력이 강화되고, 동족 조직의 확대와 문중의 형성으로 인한 선영, 재실의 기구가 활발하게 나타나게 된다. 선영에서 묘제(墓祭)에 따른 재실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분암은 규모를 확장하여 재실의 기능까지도 수행하였다. 이후 분암은 별묘와 재실, 강학당 등이 주위에 추가로 건립되면서 차츰 규모가 커지고 그 기능과 역할도 다양해져갔다. 학문을 도야하고 시회(詩會)와 서적출판, 족보편찬 등이 분암에서 이루어졌고 문중의 종회 등 문중활동의 구심점이 되었다.

분암의 형태는 초기에는 법당만 있거나 또는 법당과 승려가 거주하는

방과 부엌 등의 구조로 조출한 구조였다. 그러나 차츰 재숙(齋宿)을 위한 방과, 강학 또는 제사의 공간을 위한 누마루 등이 추가 건립되면서 규모가 수십 칸에 이를 정도로 커져 갔다. 그러나 사액분암의 경우는 많은 수호승군의 거주를 위해 건립 초기부터 규모가 수십여 칸에 이르기도 하였다.

분암의 관리와 운영은 주로 승려가 하였다. 1~3인이 거주하던 작은 규모부터 20인 이상의 수호승군이 거주하던 큰 규모까지 있었으며, 이들 승려는 망자의 명복을 위한 제를 올리는 것 외에 기와를 굽거나 곡물창고를 관리하고, 족보 편찬을 돕기도 하였다. 승려들은 불교침탈이 심해져 가는 조선시대 상황에서 사대부 집안의 비호로 부역을 면제받기 위해 속사(屬寺)에 의탁하는 등 상호 필요에 의해 결집이 되었다.

18세기 후반기부터는 승려 대신 재직(齋直)이 관리를 맡게 되면서 분암의 기능이 점차 사라지고 재실기능만 이어져 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와 다르게 분암이 문중사찰로만 그대로 존립해 오는 경우도 있다. 이는 파주 지역 분암 성재암과 오봉사의 경우에서 확인된다.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파주지역에는 왕실의 외척과 부마 집안이 다수 존재하였고, 권문세가가 많아서 성재암·오봉암·영신암 등 분암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파평윤씨의 성재암과 함안조씨의 오봉암이다.

파주시 교하읍의 성재암은 파평윤씨가의 분암으로 세조의 장인 윤번의 묘역을 조성하면서 사액분암으로 건립되어 목불을 하사받고, 수호승군을 배치 받는 등 다른 문중분암과의 차별성이 있다. 성재암은 파평윤씨 종인들의 종례회나 강학당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문중의 족보를 편찬하고 목판본을 보관하던 장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분암 이외에 재실, 강학당 등이 경내에 함께 건립되었으나, 일제말기 폐철된 이후 이 건물들은 소멸되고, 사찰만 재건되어 문중절로 남아 있다.

파주의 월롱면 아가피의 오봉암은 조감의 유언으로 자신의 묘역에 건립된 분암이다. 그런데 이 분암은 유생(儒生)들을 지도하던 초당(草堂)에서 연원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건립 초부터 승려가 거주하며 치재, 수묘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고, 현재도 문중사찰로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분암에 대한 본 연구로 인하여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조선시대 분암의 설립 시기와 설립 과정, 그리고 분암의 기능과 운영 및 형태, 변화과정 등을 알아낼 수 있었다. 아울러 유교사회였던 조선 전기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사대부 계층의 불교적 상장례와 관련된 습속의 일면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참고 문헌】

1. 자료

- 『龍村先生文集』, 장수황씨대종회, 2001.
『韓國文集總刊』, 민족문화추진회, 1999
『朝鮮佛教通史』, 李能和, 新文館, 1918
『朝鮮王朝實錄』
『安東의 懸板』 上·下, 안동민속박물관, 2009,
『安東의 齋舍』 I, 안동민속박물관, 2009,
『坡州郡史』, 파주시, 1984.
『坡州市誌』, 파주시, 2009
과평윤씨교하종중, 고문서 및 종중회의록, 문서류
趙在天, 『漁溪先生 行蹟과 後孫』, 1993.

2. 연구서

- 金漢泰, 『韓國佛教史』, 경서원, 1997
김혁, 『특권문서로 본 조선사회』, 지식산업사, 2008
이이화, 『역사속의 한국불교』, 역사비평, 2002
韓祐勳, 『유교정치와 불교-여말선초 대불교시책』, 일조각, 1993

3. 연구논문

- 권순강, 「밀양 여주이씨 조영활동에 관한 연구:정자.재실.사당을 중심으로」, 밀양대산업대학원 석사논문, 2004
권영웅, 「세조대의 불교정책」, 『진단학보』 75호, 1993
김동인, 「조선시대 재실건축의 배치와 평면유형에 관한 연구:경상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영남대 박사논문, 1993
박강철, 이상선, 신웅주, 「광주.전남지역 재실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 지역사회발전연구』, 2003
박병선, 「조선후기 원당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논문, 2002.

- 유기원, 「안동문화권 재실건축:건축적 형식과 역사적 전개」,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7
- 유호건, 「조선시대 능침원당 사찰의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논문, 2007
- 윤기엽, 「조선초 사원의 실태와 그 기능-사원시책에 의한 공인사원을 중심으로」, 『불교학보』 46, 2007
- 이봉춘, 「世祖朝의 興佛政策과 佛典諺解」 『한국불교사의 재조명』, 1994
- 이상선, 「전남지방 재실의 실태에 관한 연구」, 조선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3
- 이영화, 「朝鮮初期 佛教儀禮의 性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논문, 1992.
- 이정, 「전라남도 재실공간의 입지와 경관 특성」, 『남도문화연구』 7집, 2001
- 이정, 「경북.대구지역 재실공간의 조영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008
- 이정자, 「경남 밀양지역 齋室建築의 특성에 관한 연구」, 밀양대학교 석사논문, 2003
- 이해준, 「光山金氏 墳庵 ‘永思庵’ 資料의 性格」, 『고문서연구』, 2004
- , 「朝鮮後期 門中活動의 社會史的 背景」, 『東洋學』 23집, 1993
- 전병일, 「제례공간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충청도 지방의 재실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석사논문, 2002
- 정석중. 박병선, 「朝鮮後期 佛教政策과 願堂(1)-尼僧의 存在樣相을 中心으로-」, 『민족문화논총』 18-19, 1996
- 정재영, 「신양반 의식의 형성과 재실의 건립:청도군 수야리의 사례」, 영남대 석사논문, 2006
- 鄭鍾秀, 「朝鮮初期 喪葬儀禮 研究」, 중앙대학교 사학과 박사논문, 1994
- 최명순, 「문중별 유교건축의 건립특성에 관한 연구-전남지방을 중심으로」, 목포대 석사논문, 2003
- 崔在錫, 「朝鮮初期의 喪祭」, 『규장각』 7, 서울대학교 규장각, 1983
- 韓基汶, 「高麗時代 寺院의 運營基盤과 願堂의 存在樣相」,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1994.
- 홍광표, 허준, 「서울지역에 造營된 朝鮮時代 願刹의 文化景觀의 特性에 관한 研究」, 『서울학연구』 9, 1998
- 韓祐勳, 「朝鮮王朝初期에 있어서의 儒敎理念의 實踐과 信仰 · 宗教」, 『한국사론』 3, 1976
- 한희숙, 「조선전기 장례문화와 歸厚署」 『朝鮮時代史學報』 31, 朝鮮時代史學會, 2004

【부 록】

인터넷으로 <한국문집총간>과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문집 및 비문, 서간, 일기 등에서 분암이라는 용어는 총 72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db.itkc.or.kr> <한국고전번역DB/한국문집총간>

<http://db.history.go.kr/><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구분	제목	종류	저자	분암관련 문구
1	문집	龍門先生集	詩章	龍門 趙昱 (1498~1557)	退谷趙葆眞墳菴題法靈詩軸 澤堂李植
2	"	龜峯先生遺集	上 樑文.通文	權德麟 (1529~1573)	墳菴上樑文, 玉山士林答陵齋通文,
3	"	牛溪先生續集	詩	牛溪 成渾 (1535~1598)	哭栗谷墓。見其墳庵僧軸有詩。書其下。 世態隨人轉。憂端老更新。那知作後死。披讀一傷神。
4	"	栗谷先生全書	詩	栗谷 李珥 (1536~1584)	題墳菴僧軸 欲使心無愧。那堪面目憎。招提草樹。寂寞對山僧。
5	"	鶴峯集	詩	鶴峯 金成一 (1538~1593)	청명절에 경출산(景出山)에 있는 선영(先塋)에 성묘하고 이어 재암(齋庵)에 머물면서 여러 조카들에게 보이다.
6	"	可畦先生文集	日記	可畦 趙翊 (1556~1613)	子善近爲東行邀我敘別往赴山寺連枕一夜子善和贈余前日寄詩卽酬之[寺卽其墳菴也]
7	"	滄浪先生詩集	詩	滄浪 成文濬 (1559~1626)	栗谷墳庵。次先生韻。 駿骨無人貴。空山草木長。金臺如有築。猶可報燕王。
8	"	體素集	雜著	體素齋 李春英 (1563~1606)	金氏墳庵記
9	"	醉吃集	詩	醉吃 柳瀟 (1564~1636)	題梧陰尹相公墳菴
10	"	東岳先生集卷	詩	東岳 李安訥 (1571~1637)	東陽尉樂全居士。到金浦墳庵。淨沙彌隨之。到望海庵
11	"	養直先生文集	詩	養直 都聖俞 (1571~1649)	墳菴[三首]
12	"	益陽聯芳集	詩	南慶薰 (1572~1612)	泥田墳庵吟成一律志感

				및 英陽南氏 7世 24명	
13	"	愼獨齋先生遺稿	雜著	愼獨齋 金集 (1574~1656)	題先世墳庵遺籍後 復題先世墳庵遺籍後
14	"	春睡堂逸稿	詩	春睡堂 권주 (權(黑+主)) (1576~1651)	助臥墳庵感舊
15	"	潛谷先生遺稿	詩	金堉 (1580~16589)	韓御史 墳菴에서 壁上韻에 차운하다
16	"	澤堂先生集	詩	澤堂 李植 (1584~1647)	香谷 盧可尊의 墳菴에서 유숙하며,
17	"		詩		洪判書의 墳菴에 들러
18	"		詩		香谷에 있는 盧可尊의 墳菴에서 묵으며
19	"	澤堂先生續集	詩		비를 무릅쓰고 盧明宰의 墳菴에 가서 묵으며 예전의 시에 차운하다. 2수. 지난해 이맘때 盧氏 叔姪과 함께 이 墳菴에서 묵었는데, 그때에도 비가 왔었다.
20	"	玄谷詩集	詩	玄谷 鄭百昌 (1588~1635)	次李五峯 好閑 韻。題福來菴僧覺去軸。 福來。乃五峯夫人墳菴。
21	"	白軒先生集	詩稿	白軒 李景奭 (1595~1671)	贈墳庵長老樞解
22	家乘	靖孝公家乘	碑記	仁興君 李俔 (1604~1651)	墳菴碑記,
23	文集	宋子大全	詩	尤菴 宋時烈 (1607~1689)	過李原州 聖淵 墳菴
24	"	宋子大全	碑		仁興君墳菴碑
25	"	魯西先生遺稿	詩	魯西 尹宣舉 (1610~1669)	宗會墳庵。奉送叔氏向京。以花發多風雨人生足別離分韻。得風字。
26	"	孤山先生文集	詩	孤山 李惟樟 (1625~1701)	題權聖源 泳 墳庵
27	"	文谷集	詩	文谷 金壽恒 (1629~1689)	觀音寺僧詩軸。次白軒相公韻。 寺卽相公墳菴。詩軸曾被火熬其上下端
28	"	明齋先生遺稿	詩	明齋 尹拯 (1629~1714)	同宿于墳庵。翌朝。行宗會禮
29	"	南溪先生朴文 純公文正集	詩	南溪 朴世采 (1631~1695)	將作湖西行。出次澤堂 李公植號 墳菴。
30	"	南溪先生朴文 純公文續集	詩		余以神衰不欲作句語。來住墳庵。寶蓋山人聰印進一絕。遂次之。
31	"	晚靜堂集	詩		辛酉春。以看石役。久留墳菴。暇日。

32	"	晚靜堂集	詩	泰 (1652~1719)	端陽日。在 <u>墳庵</u> 孤坐。百感集懷。謾拈筆。
33	"	密菴先生文集	詩	密菴 李栽 (1657~1730)	<u>墳庵</u> 宗會。家兄舍弟與伯任
34	"	密菴先生文集	詩		先討黃知縣再叟 翼再 于其 <u>墳庵</u> 。..... 會英陽地主姜子淳 樸。宿趙華父 振 <u>墳庵</u> 有感。
35	"	密菴先生文集	記		篤材洞 <u>墳菴</u> 重修記
36	"	玉川先生文集	書	玉川 趙德鄰 (1658~1737)	書示蓋夫 乙巳北遷時。餞別于 <u>墳庵</u> 。蓋夫臨別涕泣
37	"	頭陀草	詩	澹軒 李夏坤 (1677~1724)	臘月三十日。 <u>墳庵</u> 書懷。
38	"	白下集	詩	白下 尹淳 (1680~1739)	馬氏 <u>墳庵</u> 。待李台仲協。
39	"	鶴巖集	詩	鶴巖 趙文命 (1680~1746)	因史局事。陳章違罷。避出 <u>墳菴</u> 。
40	"	黎湖先生文集	詩	黎湖朴弼周 (1680~1748)	甲辰七月。宿松都 <u>墳庵</u> 。聞蟲聲作。
41	"	華齋集	書	白華齋 黃翼再 (1682~1747)	密菴 李栽에게 보낸 편지. 玉峯의 <u>墳菴</u> 을 수리하고 이를 기념하여 韓德師 등 士友들과 詩會를 갖고 유람한 일들을 전하면서 [朱子書質疑]의 刪定작업이 마무리되었는지를 묻고 한 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전하고 있다.
42	"	南塘先生文集	詩	南塘 韓元震 (1682~1751)	戊午冬。余在 <u>墳菴</u> 。沈聖游徒步來從 數月而去。其意甚勤。...
43	"	南塘先生文集拾遺	詩		<u>墳菴</u> 重修。次季明韻。 戊午冬。余在 <u>墳庵</u> 。沈聖游 觀 徒步來從。誦傳高山贈行詩。聊步其韻。
44	"	睡聲先生文集	詩	睡聲 徐錫麟 (1710~1765)	又次玉洞子 <u>墳庵</u> 韻
45	"	平菴先生文集	詩	平菴 權正 (1710~1767)	寓西洞 <u>墳庵</u> 雨後次壁上韻
46	"	豐墅集	詩	豐墅 李敏輔 (1717~1799)	見聖庵趙侍中 <u>墳庵</u> 也。卜日約會十數人皆來。
47	"	樊巖先生集	詩	樊巖 蔡濟恭 (1720~1799)	竹州 <u>墳菴</u> 書懷。示吳景參。壬辰
48	"	川沙先生文集	詩	川沙 金宗德 (1724~1797)	杏村 <u>墳菴</u> 二絕
49	"	存齋集	詩	存齋 魏伯珪 (1727~1798)	獨宿俯溪堂 魏氏 <u>墳菴</u>

50	"	頤齋遺藁	上 梁文	頤齋 黃胤錫 (1729~1791)	靈光郡宜寧南氏墳庵重修上梁文 爲南上舍彦極製
51	"	東塾集	詩	東塾 金養根 (1734~1799)	會申兄墳庵爲寫歲暮牢騷。來會申兄之物閒墳庵。
52	"	念睡軒文集	詩	念睡軒 金龍翰 (1738~1806)	箭川崔氏墳庵。與諸益夜話。
53	"	懼庵先生文集	詩	懼菴 李樹仁 (1739~1822)	次蔡光汝墳菴落成韻二首
54	"	臥隱先生文集	記	臥隱 金翰東 (1740~1811)	及時洞墳菴記 墳菴之設昉於置戶守墓而我東士大夫家,...既齊會飲福于齋菴,
55	"	貞窩先生文集	詩	貞窩 黃龍漢 (1744~1818)	急雨行、憶從兄在墳菴[已酉]
56	"	而已广集	詩	而已广 張混 (1759~1828)	過子淑墳庵如斯亭
57	"		詩		清潭朴孝子墳庵 ...
58	"	金陵集	詩	金陵 南公轍 (1760~1840)	墳庵。酬里中諸君。
59	"	邁野文集	詩	邁野 徐活 (1761~1838)	宿在洞墳庵夜誦朱書
60	"	守軒先生文集	詩	守軒 柳懿睦 (1785~1833)	留天燈墳庵。鶴棲族叔父[台佐].....墳庵修理事。留萬洞。感物追慕。
61	"	櫟坡文集	詩	櫟坡 權錫晦 (1789~1851)	輒爲之盤桓臺上。擬欲倣思亭墳庵。以爲晚年藏修之地。...擬欲倣思亭墳庵。以爲晚年藏修之地。
62	"	曉山文集	詩	曉山 李壽澄 (1837~1908)	到馬洞登平齋墳菴一宿 ... 立春日將往廣德墳菴行宿仙塘...
63	"	響山文集	詩	響山 李晚燾 (1842~1910)	高林墳菴揭扁識.....不肖近年始作府君墳庵於高林
64	"	曉庵文集	詩	曉庵 李中轍 (1848~1934)	伊溪墳庵雨中運床石
65	"	莊庵文集	詩	莊庵 金時洛 (1857~1896)	朴谷墳庵遇雨留宿
66	族譜	金海金氏族譜	記	金鎮衡 編	慶源：金海金氏墳菴...
67	詩文	蓮洞安氏墳庵記	詩	未詳	진성이씨 향산고택
68	拓本	靖孝公仁興君墳菴碑記	拓本	宋時烈 記 李俣 書	仁興君 李瑛(1604-1651)의 廟 結에 지은 齋室과 관련된 일을 기록한 비문의 拓本
69	문서	義城金氏 雲川宗宅 上疏	上 疏文	未詳	四十年前内外諸子孫營立影堂於墳庵之但 후학을 양성하고, 학문 연찬에 주력해 온 특정 정사(精舍)를 서원으로 승격해 주기를 간청한 상소문

70	문서	眞城李氏 響山 古宅 소장고문 서	記	未詳	蓮洞安氏墳庵記
71	문서	재령이씨 영해 파종가 소장고 문서	문서	未詳	創起墳菴.....
72	일기	羅巖隨錄外 典籍-渚上一月	일기	소유자 박재 문 (보물제 1008-5호)	與金谷族老伴上希夷墳庵 萬根日午 其屋
					與星臺及小渚諸益 敘話于松谷墳庵仍宿



ABSTRACT

A Study on the Small Buddhist Temples Guarding Tombs in the Joseon Dynasty - Focusing on Paju Region -

Gwon, Hyo Sook

Major in Korean History

Dept. of History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bunam, a Buddhist facility built for protecting ancestor's grave boundaries, where people prayed for the souls of the departed and had ancestral rituals during Joseon Dynasty Period. The term "bunam" is still strange and unfamiliar to the academic world, but as it was a Buddhist facility generally constructed around the boundaries of a ground in a family burial site in Joseon Dynasty Period, this private temple is frequently found in a collection of work and the records of the royal house, epitaphs, the plaques of two-storied houses, etc. Some of them still remain in the name of a Buddhist temple in several regions.

Noblemen and government officials cremated a dead body according to Buddhist funeral ceremonies and enshrined the remains in a Buddhist sanctuary. Then, they had "Choocheonjae"(追薦齋:Chundojae) and "Geeshinja"(忌晨齋), and buried it in a tomb in a few months or years. Bunam was established depending on its use

during such a funeral process. The funeral ceremonies in accordance with this Buddhist cremation were popular in the Goryeo dynasty, and they were still prevalent even till the mid-fifteenth after the foundation of Jeseon. Even when Buddhist funeral ceremonies almost disappeared after the 16th century and the boundaries of a grave were made, it was a common thing for a nobleman family to allow a Buddhist monk to perform the rituals for leading the deceased to the way to Heaven and praying for the souls of the departed, and to construct bunam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boundaries of a grave.

Due to the enhancement of cohesion between relatives centering on agnate, the expansion of the same tribe organizations, and the formation of clan after the mid-seventeenth century of Jeoson dynasty, such an institution as a family burial site and a tomb - protecting - facility actively appeared. As the necessity of a tomb - protecting - facility for a family burial site was emphasized after “Myoje” (墓祭: a memorial service held before the grave), Bunam was expanded in scale and functioned as a tomb - protecting - facility. From then on, bunam became larger and its function and role were getting diversified, as a separate tomb, a tomb-protecting-facility, and forum school were additionally constructed. A variety of activities like learning, publications of poetries and books, and compilation of a genealogy were done in this bunam, which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clan activities including a clan meeting.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bunam were done by a Buddhist monk. It ranged from a small - scaled one where a group of 3 guardian Buddhist monks resided to a large - scaled one where more than 20 resided. These Buddhist monks not only held rituals but also baked tiles, managed granaries, and helped compile family records. Buddhists monks massed depending on their mutual necessity; for

example, they referred themselves to “Soksa”(屬寺) in order to be exempted from forced labor under the protection of nobleman family under the situation when the infringement of Buddhism was getting serious.

The type of bunam started from a simple style designed for the structure with a room in which a monk resides and a kitchen, but the size gradually became larger as a room and an upper floor for “Jaesuk”(齋宿: a staying place in case of ceremonies) were additionally constructed. The name gradually changed into a variety of ones, ranging from “Jaesa”(齋舍), “Byungsa”(丙舍), “Jaegak”(齋閣), to “Jungsa”(精舍).

From the late of the 18th century, as “Jaejik”(齋直) came to take charge of the management instead of a Buddhist monk, the function of “bunam” slowly disappeared and only a function as a ritual room succeeded. Contrary to this, there is a case when bunanam” has existed as a clan temple only. It is confirmed from the cases of bunams in Paju - Sungjae Temple and Obong Temple.

This study explored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Paju, Gyeonggi Province, and analyzed the features of a privately - bestowed bunam and a clan bunam by reviewing the cases of 2 bunams located in Paju, which have been existing since construction.

Especially, Sungjae Temple located in Kyoha-eup, Paju is the banam for Papyung Yoon’s clan, which is differentiated from other clans’ bunams; it was constructed as a privately-bestowed bunam and Papyung Yoon’s clan was bestowed a wooden Buddhist image while making the boundaries of a grave for Yoon Bun, father - in -law of King Sejo, and a group of Buddhist guardian monks were dispatched. Sungjae Temple is used for a regular meeting for clan ceremonies, or a forum school for Papyung Yoon’s clan, and a place for compiling

clan's register and keeping the block book. Besides bunam, a ritual room and a forum building were constructed, but these facilities became extinct after extinction in the late of Japanese colonial period. Then, these rooms and buildings were reconstructed as a Buddhist temple in 1979, remaining as a clan temple.

Obong Temple located in Agamoi, Wollong-myeon, Paju is the banam constructed in the early of 1600 in an attached cottage (草堂) for teaching Confusion scholars (儒生) residing around the boundaries of the grave. At present, this temple exists as a clan temple which has been expanded in scal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stablishment time and purpose of bunam in Joseon dynasty, the functions, the operation and types, and the changing process.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the noblemen's Buddhist funeral rites and one side of the related folkways, which were generally performed in the early of Joseon dynasty in Confucianism social system.